

가족복지론

(09주~14주)

담당교수 : 조선희

가족복지론 목차 | Contents

09주 01차시	입양 및 위탁 가족	003
09주 02차시	소년 · 소녀 가족	011
10주 01차시	이혼 가족	021
10주 02차시	재혼 가족	033
11주 01차시	맞벌이 가족	043
11주 02차시	1인 가족	055
12주 01차시	한부모 · 미혼모 가족	065
12주 02차시	외동이 · 조손 가족	075
13주 01차시	다문화 가족	084
13주 02차시	치매노인 가족	097
14주 01차시	중독 가족	109
14주 02차시	가족복지의 전망과 과제	121

제9주차 1차시	
강의주제	입양 및 위탁 가족
<div>학습 목표</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가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입양가족 현황을 파악하고 입양가족의 접근성 강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위탁가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위탁가족의 현황을 파악하고 위탁가족 활성화 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
<div>학습 내용</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양가족의 이해 2. 입양가족 현황 및 입양의 접근성 강화 방안 3. 위탁가족의 이해 4. 위탁가족의 현황 및 위탁가족 활성화 대책

[학습하기 (1교시)]

1. 입양가족의 이해

1) 입양가족사업의 의의

(1) 입양의 개념

- 생물학적인 과정이 아닌 법적·사회적 관계에 의해 친자관계를 맺는 것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민법」 제883조 제1호), 가정법원의 허가(「민법」 제867조제1항)를 얻은 때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함
- 입양신고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고,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됨

(2) 입양제도의 의의

- 모든 어린이는 태어나면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이 많은 것이 현실임
- 입양제도는 이러한 아동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고, 가정이라는 틀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아동의 정신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제도임

2) 입양의 종류

구분	일반양자	친양자	기관입양	국제입양
근거	민법 제866조부터 제908조까지	민법 제908조의 2부터 제908조의 8까지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제18조 및 제19조, 국제사법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입양 당시 양부모의 본국법
성립요건	협의로 성립	재판으로 성립	가정법원의 허가	양친이 될 사람의 본국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질적 요건 충족
양자의 성·본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상거소지법에 따름

친생부모 와의 관계	유지	종료	종료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 에는 자녀의 상거소지법에 따름
입양의 효력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 나, 친생부모 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는 유지됨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 하며, 친생부모 와의 관계는 종료됨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 며, 친생부모와 의 관계는 종료됨	양친의 본국법 에 따르게 되므로, 친자 관계가 발생함

▣ 용어정리

- 일반양자 입양

친생부모의 친자녀로서의 지위와 양부모의 양자로서의 지위를 모두 갖게 됨

- 친양자 입양

친양자는 입양이 되면 양부모의 완전한 친자녀와 같이 되는 양자를 말함

-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의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됨

- 국제입양

한국에서의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또는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외국에서의 한국인 사이의 입양 또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것을 말함

3) 입양가족복지사업의 구성요소

(1) 입양대상 아동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이하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한 사람
- 부모(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에 사유로 입양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직계 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사람
-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
- 그 밖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 도지사 또는 시, 군, 구청장이 보장시설에 의뢰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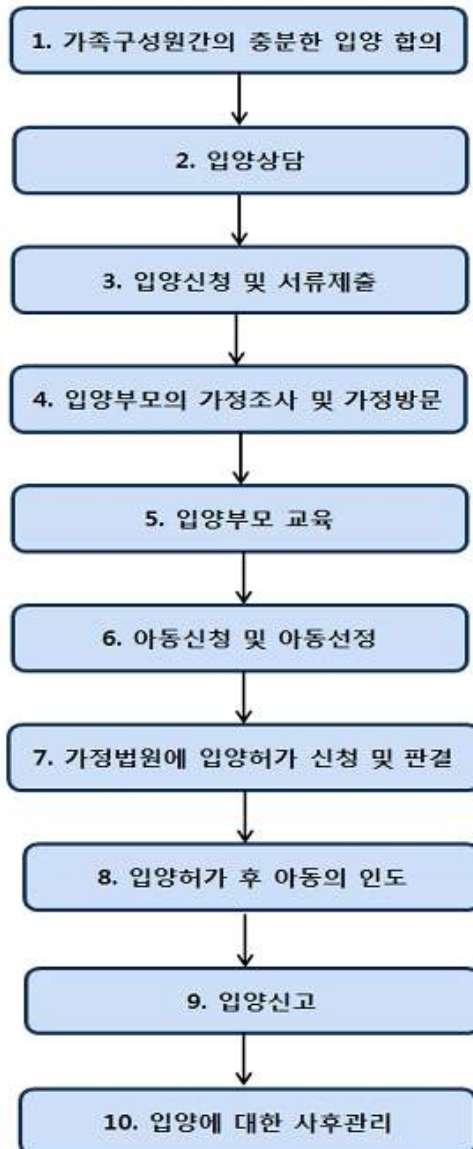
(2) 친생부모

- 입양대상 아동의 친부모는 아동에 대한 포기를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할 수 있음
- 친권의 포기는 경제적 빈곤, 이혼 및 별거, 결손가정, 사망 등임

(3) 양친의 자격

- 양자를 부양함에 있어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함
-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어야 함
-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양친이 될 사람의 나이 범위는 25세 이상으로서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여야 함
-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함

(4) 입양절차



☐ 가정법원의 허가 시 필요한 서류

- 양자가 될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 양자가 될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
- 양친이 될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양친교육 이수증명서

✓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 양친 가정조사서

- 입양동의서

(5) 입양 사후 관리

-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친양자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동안 입양기관의 담당자가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하여 관찰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입양가정 적응 지원
- 사후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되, 1년간은 의무적으로 이행
- 1년간 총 6회 이상 사후관리 진행, 최소한 3번의 가정방문(필수), 가정방문 이외에는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대면 상담

참고 : <https://easylaw.go.kr>

2. 입양가족 현황 및 입양의 접근성 강화 방안

1) 입양가족현황

국내외별(1)	2019	2020	2021
계	704	492	415
국내	387	260	226
국외	317	232	189

참고 : <https://kosis.kr>

2) 입양의 접근성 강화방안

-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모교육 구성 및 확대
- 사후 서비스 프로그램의 지속성 및 접근성 강화
- 특별한 요구를 지닌 아동에 대한 전문적 개입

3. 위탁가족의 이해

1) 가정위탁보호

- 친부모의 사정으로 인해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게 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였을 때, 일정기간 동안 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위탁가정을 통해 아동이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역할

- 아동이 원가정에서 일시적으로나 혹은 장기적으로 돌볼 수 없는 아동에게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를 제공하는 서비스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시설보호 보다는 가정의 환경이 더욱 유리하다는 점에서 아동복지에 있어서 상당히 중시되고 권장되는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등장하고 있음

3)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목적과 의의

(1) 목적

- 가정위탁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에게 대리가정을 제공하고, 시설 입소를 예방하며, 미숙하거나 무책임한 부모로부터 아동을 일정 기간 분리시키고, 위탁가정에도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2) 의의

- 첫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아동이 가정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음
- 둘째, 이렇게 함으로써 아동의 시설 입소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시설을 점차 줄여 갈 수 있음
- 셋째, 문제가 있는 부모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아동을 분리함으로써 부모와 아동의 문제를 치료하는 것을 통해 원가정을 회복할 수 있음
- 넷째, 가정위탁보호는 궁극적으로는 아동이 원가정과 재결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가정 해체를 방지할 수 있음

4. 위탁가족의 현황 및 위탁가족 활성화 대책

1) 위탁가족의 현황(2021년 기준)

- 가정위탁 보호아동 수는 9,539명 임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포함)(9,396명, 98.5%)
- 전문가정위탁(99명, 1.1%)
- 일시가정위탁(44명, 0.5%) 형태 임
- 2021년부터 학대로 긴급하게 분리된 6세 이하의 아동을 가정에서 일시보호(최대 6개월)할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부터 학대 아동 외 경계선 지능 아동, 장애아동 등 더욱 세밀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양육의 전문성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하는 '전문가정위탁 사업*'을 추진함

참고 : <https://ncrc.or.kr>.

(2) 위탁보호 서비스

- 무료 위탁보호 : 양육 부담을 수탁자가 부담하는 위탁보호
- 유료 위탁보호 : 양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위탁보호
- 고용 위탁보호 :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요보호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함과 동시에 요보호 아동을 자기의 사업장에 취업시킴으로써 장차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위탁보호.
- 입양 위탁보호 : 수탁자가 요보호 아동을 자기의 양자로 하기 위한 위탁보호

2) 위탁가족 활성화대책

- 자립지원프로그램 활용
- 장기위탁보호의 해소
-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
- 지역가정위탁센터의 공무원 교육 및 협력관계 강화

제9주차 2차시	
강의주제	소년·소녀 가족
<div>학습 목표</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소녀 가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소년·소녀 가족의 발생 원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소년·소녀 가족의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
<div>학습 내용</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년·소녀 가족에 대한 이해 2. 소년·소녀 가족의 발생 원인 3. 소년·소녀 가족의 서비스 현황과 대책

[학습하기 (1교시)]

1. 소년·소녀 가족에 대한 이해

1) 소년·소녀가족의 개념

- 18세 미만의 소년 소녀가 실질적인 생계의 책임을 지고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세대
- 행정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18세 미만(부득이한 경우는 20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음
- 청소년 백서(보건복지부,1998)
 - 부모의 사망, 이혼, 질병, 심신장애, 가출, 복역 등으로 노동력이 없는 직계혈족을 모시고 있는 세대
 - 생활 능력이 없는 방계혈족과 더불어 생계가 곤란한 어려운 결손·결함세대
 -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 경제적·정신적으로 가사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생활하는 세대
- 2000년 9월 소년소녀가장에서 소년소녀가정으로 명칭이 변경됨

2) 소년·소녀가족의 책정

- 198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대리보호 형태가 가정적 보호 형태를 띤 모습으로 변화하였음
- 가정적 보호는 시설보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인 시설병을 최소화 할 수 있음

(1) 가정적 보호 형태의 의의

- 첫째 : 시설보호로 인한 아동의 발달과 복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인 시설병을 최소화 할 수있음
- 둘째 : 국가 중심의 보호에서 벗어나 요보호 아동에 대한 민간 참여를 유도 할 수 있음
- 가정적 보호의 문제점
 - 자아정체감 발달시기인 청소년기에 가장의 책임을 짊어지는 것은 아동복지의 기본 신념이나 가치에 위배됨
 - 현재의 서비스는 물질적 서비스가 대부분으로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한 지원 관점에서 부적절함
 - 소년·소녀의 보호보다는 민간 자원에 의존함으로 국가의 아동 및 청소년 복지 부담의 극소화 경향이 있음

(2) 가정위탁

- 가정위탁 대상아동
 - 만18세미만의 아동(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
 - 시·군·구에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우선적으로 선정) 등
- 가정위탁의 유형
 - 일반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을 일반가정에서 보호양육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 2세 이하, 장애, 경계선지능 아동을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양육
 - 일시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양육(기본3개월, 최대6개월)
- 신청장소 : 각 동 행정복지센터
-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 가정위탁아동(만7세 미만) 1인당 월 30만원,
가정위탁아동(만7세 이상) 1인당 월 40만원
 - 학원비(학습 관련) : 초등 5,6학년 월 10만원, 중등 월 15만원, 고등 월 20만원
 - 수련회비 및 수학여행비 : 초·중·고등학생 연 2회(상, 하반기) / 1회당 9만원 총 18만원
 -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 대학입학자 1인 1회 200만원
 - 자립정착금 : 종결대상자 1인 1회 800만원
 - 심리치료 지원 : 심리검사비 회당 20만원 이내,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각 월 20만원 이내, 교통비 월 2만원 이내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사업대상 :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아동 대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18~24세
- 지원내용 : 1인당 월 30만원

참고 : 복지포털

(3) 그룹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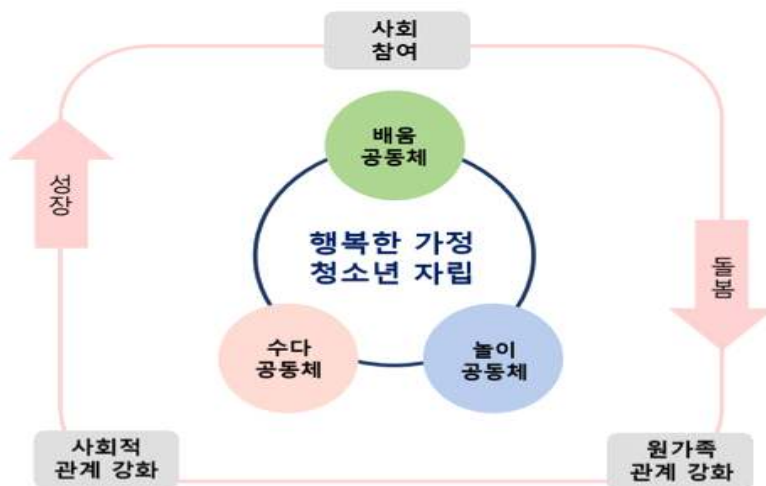
■ 그룹홈의 정의

- '공동생활가정'이라는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임
- 빈곤·방임·폭력 등의 학대, 가정해체, 부모사망 등으로 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가정과 가장 유사한 대안 가정의 돌봄 체계.
- 청소년 보호·양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다, 놀이, 배움이 있는 가정 속에서 청소년이 행복을 경험하고 건강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

■ 목표

- 20세 자립을 원칙으로 원가족 관계강화, 사회적관계망형성, 사회참여를 통해 자립 이후에도 더불어 사는 힘을 가진 존재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함

■ 지원내용



(4) 요보호아동 시설 및 그룹홈

-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학대, 유기, 정신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요보호 아동이 존재함
- 아동들은 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등에서 시설보호를 받거나 혹은 입양, 위탁가정 등 가정보호를 받음
- 시설보호는 정상화 원리, 탈시설화 지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

- 그룹홈의 경우 지역사회 내 일반 가정과 같은 형태를 띠
 - 그룹홈에서 보호되는 아동의 비율도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임
 - 가정 외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반영구적 가족기능을 담당하는 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 시설 유형별 성과 차이에 관한 연구
 - 시설이나 가정위탁에 비해 그룹홈의 아동들이 평균적으로 더 나은 발달 성과 지표(예 : 삶의 만족도, 행복, 걱정, 우울, 보호 만족도, 낙인감, 사회적지지, 학교 적응도 등)를 보임
 - 시설 아동에 비해 그룹홈 아동이 낙인감은 덜 느끼고 사회적 지지와 주양육자 태도는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학교적응도도 더 높았음
- 참고 : (사) 한국청소년그룹홈협회. 2022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연구

2. 소년·소녀 가족의 발생 원인

1) 보호대상 아동

(1) 보호아동 발생원인

- 보호대상아동의 정의(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함
- 보호조치 아동의 발생원인
 - 학대, 부모빈곤, 실직 등 = 아동학대+부모빈곤·실직+부모사망+부모질병+부모이혼 등
- 보호조치 현황
 - 시설보호 = 아동양육시설 등 + 일시보호시설 + 장애아동시설 + 공동생활가정

2) 소년·소녀가정 발생원인

- 1960년대부터 실시된 경제개발은 산업화·도시화를 가속시킴
- 가속화로 나타난 사회적·직업적 이동의 결과는 기존의 가족제도에 큰 변혁을 가져옴
 -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화로 변화됨
 - 핵가족은 그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가족 향상성 유지 기능의 약화를 초래하였음
 - 가족해체의 증가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해야 할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환경 증가

① 부모 및 가족 간 역할 기능의 변화

- 가족이나 친척의 보호와 부양의식이 약화
- 가정의 결손 또는 가족해체가 주 요인이 됨

② 부모사망

- 부모사망으로 부부관계와 부모-자녀 관계 및 친척과의 관계 등 가족이나 친척 간의 유대의 약화
- 결손가정으로 인한 위기에 있는 가정을 건전가정으로 조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변화함
- 부모의 가출이나 이혼 등에 의한 소년소녀가정의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임
- 부모의 이혼, 별거, 가출 등과 함께 재혼이 일반화됨
- 이혼 또는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여자가 재혼하는 경우 전남편의 자녀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보장되지 않음
- 부모가 있지만, 노동력 및 생활능력이 없어 소년소녀 가정을 보호 및 부양할 능력이 없음
- 부모가 고령으로 인해 노동력이 없거나 발병, 심신장애, 복역 등
- 부모의 생존 여부와 부양 능력 여부가 결손가정으로 이어짐

3) 영케어러의 공론화 필요성

(1) 용어의 사용

- '영 케어러'는 1980년대 말 영국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언급함
- 사회보장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커뮤니티 케어 정책에 의한 케어러(돌봄자)실태조사의 일부에서 미성년자의 가족 돌봄을 확인함
- 영 케어러를 연령대에 따른 구분
 - 18세 미만의 아동을 '영 케어러'로 상정
 - 18세부터 넓게는 30세까지 '영 어덜트 케어러'로 상정
 - 영 어덜트 케어러도 영 케어러와 마찬가지로 돌봄의 책임 부담은 동일하다고 봄
 - 하지만 '영 케어러'가 성장해서도 돌봄을 지속한다면 '영 어덜트 케어러'가 되는 것이며 돌봄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음
- 제도,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영 케어러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는 실정임
- '소년소녀가장'이라는 특정 부류나 전통사회에 얽매인 '효자효녀'로 호명함

(2) 영 케어러 공론화가 필요한 이유

(사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럴 바에 차라리 학교 안 다니고 집에 가서 엄마 보살펴야 되는데, 밥 차려야 하는데, 엄마 아파서 누워 있으면 어떡하지!’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런 생각을 끊을 수가 없었다. 결국 책상에 엎드려 평평 울어버렸다. 어디선가 ‘재 뭐야’라며 수군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희준씨에게는 새로운 학년에 적응하기 위해 써야 하는 에너지가 바닥나 있었다. 엄마가 아프고 나서 변해버린 가족 환경에 적응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었다

-오마이뉴스, 조기현의 영 케어러 시리즈 2021.01.07.-

① 영 케어러의 문제점

- 생애주기에 따르는 과업들을 돌봄으로 인해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
- 사례의 희준씨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 직면함
- 또래 아이들과 같은 학교생활에 ‘에너지’를 쏟을 시간에 가족과 어머니 돌봄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함
- 돌봄으로 인해 희준씨는 이미 높은 우울감을 느꼈으며 학교생활, 교우관계, 진로 등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함
- 보편적으로 10대 나아가 20대는 자신의 삶을 설계하거나 준비하는 단계임
- 인생에서 제일 자유로운 시기로 자신이 원하는 일을 모색하고 도전할 시기에 포기하거나 시작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음
- 돌봄을 부담하기에 진학, 커리어 선택, 연애나 결혼, 취직, 취업 활동 등 그 이후의 인생에도 큰 영향을 미침

② 돌봄의 축소

- 돌봄이 개인과 가정으로 축소되면서 어린 혹은 젊은 돌봄자들은 놓치는 과업, 돌봄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과업이 발생함
- 물론 돌봄자의 연령대에 따라 놓치는 생애 과업은 항상 수반됨
- 영 케어러들은 사회에 진출하지도 못한 상황임
- 교육권과 성장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인생의 기반을 닦아나갈 연령대임
- 중장년층 돌봄자보다 상대적으로 10, 20, 30대 영 케어러들은 돌봄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고 있지 않음

③ 명명의 필요성

- 영 케어러를 소년소녀가장과 다를 바 없으니 굳이 이와 같은 명명이 필요한지 문제제기를 하는 혹자도 있을 수 있음
- '가장(家長)'이라는 가부장제적 관점으로서 가족의 어린 구성원을 '소년소녀'로 간주하는 것은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현 시류에 적절하지 않음
- '효자효녀'라는 칭찬의 맥락이라는 포장 하에 개인의 됴됨이에 따라 가족을 돌보는 자라고 칭하는 것 또한 돌봄을 공론장에 내세우는 데 방해물이 여겨질 수 있음
- 영 케어러가 돌봄을 사적 영역에서 '강제된' 조건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선택'적으로 돌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참고 : <https://ecosophialab.com/2021.05>.

(3) 소년·소녀 가족의 문제

- 경제적 문제
 - 가족부양의 책임자인 부모의 부재 및 상실은 생계위협이 됨
 - 학교에 다니거나 다니지 않은 경우도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함께 거주하는 직계 및 방계 가족의 능력이 없음
- 심리정서적인 문제
 - 가족 내 역할의 변화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야 함
 - 가장이라는 새로운 역할 적응과정에서 역할의 부조와 및 어려움 있음
 - 부여된 역할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갈등이 있음
- 사회적응문제
 - 가정에서의 적절한 역할 모델이 존재하지 않음
 - 부모를 통한 가정교육의 기회 상실함
 - 가치 판단 및 사회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받음
- 교육적 문제
 - 가정교육 기회의 상실로 성격 및 가치관 형성 등의 분리함
 - 상급학교 진학의 어려움을 겪음
- 가정생활 및 주거 환경의 문제
 - 식사 준비, 청소, 세탁, 가사 등
 - 동생돌보기, 질병이 있는 부모나 조부모 돌보기, 돈 관리, 중요한 집안일 결정 등

3. 소년·소녀 가족의 서비스 현황과 대책

1) 소년·소녀가족의 서비스 현황

(1) 소년·소녀가정 지원

☒ 소년소녀가정 추가지정 금지

-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 보호에 비해 외부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형태이므로, 추가지정을 금지하며,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하도록 권고함
- 소년소녀가정 제도는 향후 폐지 예정으로 추가 지정을 금지함
 - 단,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①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중 만 18세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부모제외)와 동거하는 경우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대리양육(친인척위탁 포함)으로 선정
- 부양의무자가 아닌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가정위탁으로 선정
- 15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 소년소녀가정 지정을 금지하고 가정위탁이나 시설(그룹홈)입소 등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실시

☒ 예외지정

- 15세 이상인 형제, 자매가 1인 이상 포함된 세대로서
- 당해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오랫동안 생활해왔고
- 동거하지는 않으나 주변에 친·인척 등이 거주하여
- 수시로 보호를 받고 있어 가정위탁이나 시설(그룹홈) 입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 지원아동이 만 18세 이상이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② 지원내용

- 생계·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월(지방이양) 권고
 - 부가급여액은 소년소녀가정 결정일이 포함된 달의 전액을 지급하며 중지가 결정된 달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거주지 변경시의 지급기준
 - *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 * 전입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 구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 * 소년소녀가정지원 중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또는 중지 결정일)의 다음달 부터 중지함

③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지원

- 대출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대상
 - 양육자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함
 -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소년소녀가정·대리양육가정·친인척위탁가정·일반가정위탁
 - 지원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대상자의 신청(친권자, 후견인 포함)을 받아 대상 가정을 선정함
 - 대상가정 선정 후 사업시행자에 전세주택 지원 대상 추천함
- * 지원대상 전세 주택이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공공임대주택일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관리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 49조에 따른 지방공사를 말함

- 지원기간

- 계약기간 만료 또는 지원 대상자의 연령이 만 20세를 초과한 경우 지원기한 연장
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장하여 재계약 가능

- 지원조건 : 지원 대상자가 만 20세 이전이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되기 이전까지는
무상 지원

참고 : 복지뱅크. 2020.

2) 소년·소녀 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 정부, 사회단체, 후원자의 도움으로 건전한 가정 및 사회인으로 성장

- 정부의 경제적 최저 생활을 보장과 사회단체 등의 경제 및 정서적 도움 유도

- 1985년부터 정부사업으로 실시

- 최저 생활비 보장

- 주거비 및 학비 전담

- 현실적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음

- 결연사업 실시

- 후원자 및 후견인 발굴로 결연 맺음

- 결연대상은 지역주민, 사회단체, 종교단체, 기업체 등

- 결연 및 후원 사무를 민간단체인 한국어린이재단에 위탁함

제10주차 1차시	
강의주제	이혼 가족
<div> <div>학습 목표</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 가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이혼 가족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 이혼 가족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 </div>	
<div> <div>학습 내용</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혼 가족에 대한 이해 2. 이혼 가족의 실태와 문제점 3. 이혼 가족의 현황과 대책 </div>	

[학습하기 (1교시)]

1. 이혼 가족에 대한 이해

1. 이혼가족에 대한 이해

1) 이혼의 정의

- 부부 생존 시 법률상 부부관계를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서 해소시키는 신분행위
-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도 이혼으로 정리됨
-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탈피하기 위한 방법
- 부부관계를 해소시킬 방법을 법률상으로 인정하는 제도임

2) 혼인 현상(2022년 혼인 이혼 통계)

(1) 혼인건수

- 2022년 혼인건수는 19만 2,000건으로 2021년보다 800건, 0.4% 감소
-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은 3.7건으로 2021년보다 0.1건 감소
- 2022년 혼인건수와 조혼인율 모두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음
- 연령대별 혼인건수는 남녀 모두 20대 후반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감소함
- 해당 연령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하는 연령별 혼인율을 보면 남자는 30대 초반에서 40.3건, 여자는 30대 초반에서 41.3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평균 조혼연령은 남자 33.7세, 여자 31.3세로 2021년보다 각각 0.4세, 0.2세 높아졌음

(2) 이혼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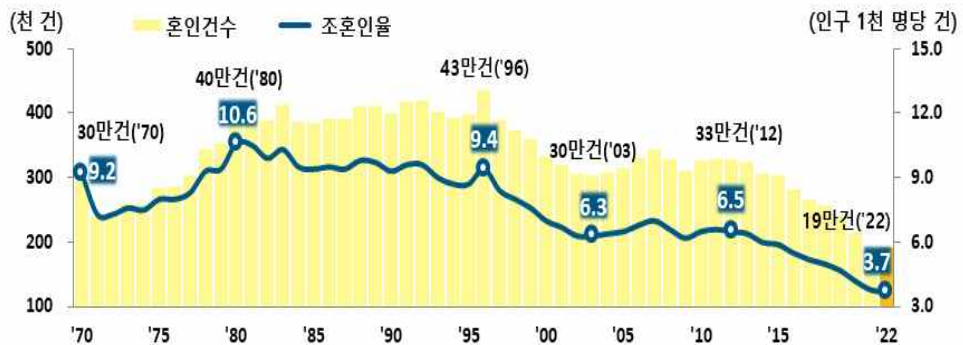
- 2022년 이혼건수는 9만 3,000건으로 2021년보다 8,000건, 8.3% 감소
-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인 조이혼율은 1.8건으로 2021년보다 0.2건 감소
- 혼인지속기간별로 이혼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4년 이하 18.6%, 5~9년 18.0%, 30년 이상 16.8% 순으로 많았음
- 연령별 이혼율은 남자는 40대 초반이 1,000명당 6.9건, 여자는 40대 초반이 1,000명 7.6건으로 가장 높았음

(3)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 외국인과의 혼인은 1만 7,000건으로 2021년보다 4,000건, 27.2% 증가
- 외국인과의 이혼은 6,000건으로 2021년보다 400건, 5.9% 감소

(혼인 건수와 조혼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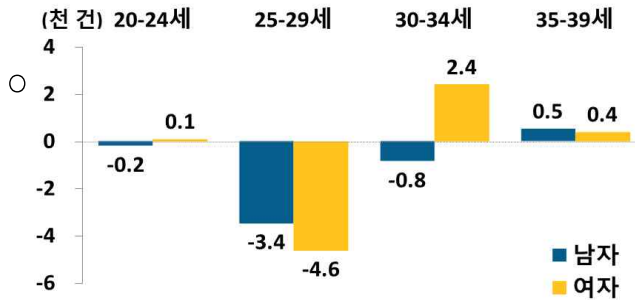
조(粗)혼인율(인구 1천 명당 혼인건수)은 3.7건으로 전년대비 0.1건 감소



(4) 연령별 혼인 건수

- 연령별 혼인건수는 남녀 모두 20대 후반에서 전년대비 가장 많이 감소
 - 남자 20대 후반에서 3천 건(-8.4%) 감소
 - 여자 20대 후반에서 5천 건(-7.2%) 감소

< 성·연령별 혼인건수 전년대비 증감, 202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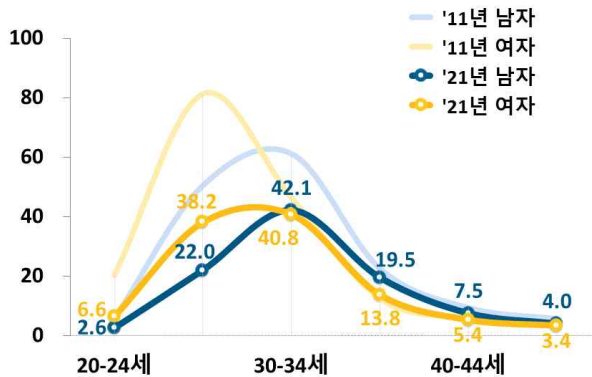
(4) 혼인 종류별 분류

- 혼인 종류별로는 남녀 모두 초혼인 부부가 전체혼인의 77.5%
- 남녀 모두 재혼은 12.4%를 차지함.
- 남자의 경우 전체 혼인 중 초혼이 83.7%, 재혼이 16.1%임.
- 여자의 경우 전체 혼인 중 초혼이 81.3%, 재혼이 18.5%임.
- 남녀 모두 초혼은 77.5%, 남녀 모두 재혼은 12.4%를 차지함.

(5) 연령 성별 혼인율

- 연령별 혼인율(해당 연령 인구 1천 명당 혼인건수)은 남자는 30대 초반이 42.1건, 여자는 30대 초반이 40.8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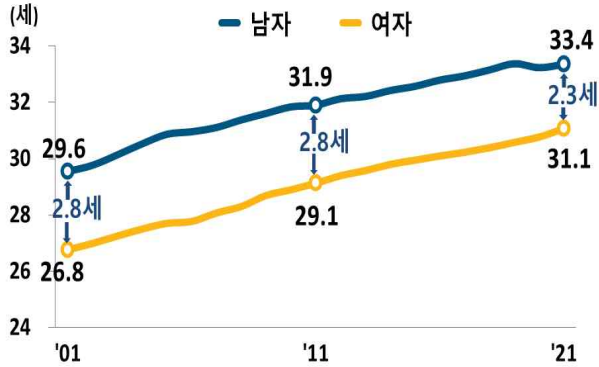
(해당 연령 성별 인구 1천 명당 건)



(6) 초혼연령

- 평균초혼 연령은 남자 33.4세, 여자 31.1세로 남자는 0.1세 상승, 여자는 0.3세 상승함.

(초혼연령)



참고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3) 이혼의 유형

(1) 협의이혼 (「민법」 제4편 제3장 제5절 제1관)

-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을 시
-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시 효력이 발생
-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함
 - 협의서를 이혼 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됨
-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
 -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됨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함

(2) 재판상 이혼(「민법」 제4편 제3장 제5절 제2관 및 「가사소송법」 제4편)

-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음
-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함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4) 그 밖의 혼인 해소 사유

■ 사망

- 부부 일방이 사망하면 혼인이 해소됨

■ 실종선고

- 실종선고는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민법」 제28조)
- 부부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보아 혼인이 해소

5) 혼인의 취소 · 무효

(1) 혼인 취소

-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모두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동일
- 이혼은 혼인의 존속 중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
-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상 장애를 이유로 혼인취소소송,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혼인취소 사유「민법」 제816조)

- 혼인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 중혼(重婚)인 경우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혼인 무효

-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 즉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됨

- 혼인무효사유(「민법」 제815조)
 -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사이의 혼인인 경우
 -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 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참고 : 법제처

6) 이혼에 대한 관점

(1) 부정적 측면

- 우울정도가 높아짐
- 경제적 문제가 발생함
- 생활수준이 낮아짐

(2) 긍정적 측면

- 생활만족도 증가
- 자존감 증가

(3) 사회적 관점

- 가족제도, 개인의식, 사회변동의 영향을 받음
- 1950-60년대 사회병리현상으로 인식함
- 1970 비판적 시각의 완화로 긍정적 측면 강조

(4) 이혼의 특징

- 지속적인 결혼 감소 추세와 더불어 일어나는 급격한 이혼의 증가
- 이혼 연령의 지속적인 증가
- 장기 결혼 부부의 꾸준한 이혼 증가
- 이혼사유의 문제
 - 성격차이
 - 가족 간 불화
 - 경제문제
 - 배우자 부정
 - 부부간 학대 문제 등

2. 이혼 가족의 실태와 문제점

1) 이혼 가족의 실태

- 1970년 대 이후 이혼율 증가시작 됨
- 1990년 대 말부터 급상승
- 이혼의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숙려기간 도입
- 2004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
- 2010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1) 이혼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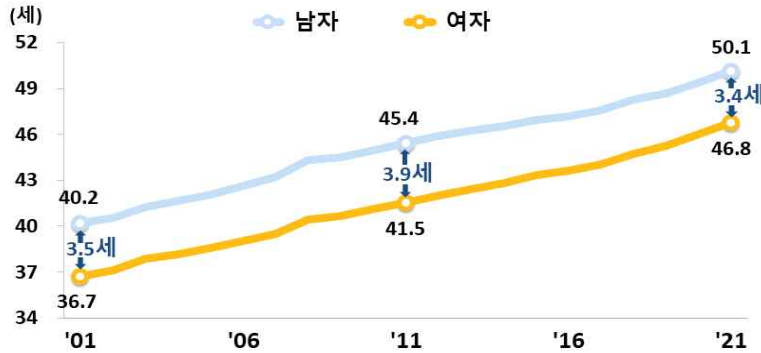
- 남자 평균이혼연령은 50.1세로 전년에 비해 0.8세 상승함
- 여자 평균이혼연령은 46.8세로 전년에 비해 0.8세 상승함
- 남녀 간의 평균이혼연령 차이는 3.4세로 2012년 이후 감소 추세임

(이혼연령)

(단위 : 세)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감	
											전년 대비	10년전 대비
남 자	45.9	46.2	46.5	46.9	47.2	47.6	48.3	48.7	49.4	50.1	0.8	4.7
여 자	42.0	42.4	42.8	43.3	43.6	44.0	44.8	45.3	46.0	46.8	0.8	5.2
평균이혼 연령 차이(남-여)	3.9	3.8	3.7	3.6	3.6	3.6	3.5	3.4	3.4	3.4	-	-

(평균이혼연령)



(2) 성 · 연령별 이혼

- 남자의 연령별 이혼율은 40대 후반이 1천 명당 7.4건으로 가장 높음
- 여자의 연령별 이혼율은 40대 초반이 1천 명당 7.8건으로 가장 높음

(3) 혼인지속기간* 및 미성년자녀 유무

① 혼인지속기간

- 혼인지속기간 30년 이상 이혼이 전년대비 7.5% 증가

② 미성년 자녀 유무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 부부 비중은 40.5%, 지속적인 감소 추세

(4) 종류별 이혼

- 협의이혼 비중은 재판이혼 비중은 22.1%로 전년대비 각각 0.7%p 감소, 0.7%p 증가함

2) 이혼 가족의 문제점

(1) 심리 · 정서적 변화

① 부정적 측면

- 이혼이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 사건 중 하나임
- 이혼 직후 우울감, 자기연민, 분노 등의 경험
- 자녀에 대한 죄의식
- 자긍심의 저하
- 낮은 심리적 안녕감
-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불안감

② 긍정적 측면

- 높은 수준의 자율성과 개인적 성장
- 불행감, 우울, 스트레스 등의 감소
- 이혼 후 자립과정을 통한 능력의 재발견

(2) 경제적 변화

- 여성의 경우 이혼 후 생활수준의 급격한 하락함
- 남성의 경우 재산분할로 재산의 감소
- 일과 가정의 병행에서 오는 갈등의 심화
- 과중한 교육비와 자녀 양육 문제
- 자녀 양육으로 인한 제한된 일자리 문제
-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대안으로 재혼을 생각하기도 함

(3) 사회적 인식

- 대인관계, 자녀양육, 경제적 활동 등에 부정적 사회적 편견
- 가족, 친구, 직장에 영향을 미치므로 소원한 관계
-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고 유지할 시간이 부족함
- 자녀의 역할 모델과의 상호 협력 부족
- 자녀에 대한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

참고 : 통계청. 2021년 혼인·이혼 통계

[학습하기 (2교시)]

3. 이혼 가족의 현황과 대책

1) 이혼 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

(1) 이혼 가족 관련법

법령명	내용	관할부처
건강가정기본법	이혼 예방 및 이혼 가족 지원	여성가족부
민법	이혼 절차에 관한 명시	법무부
가사소송법	이혼 무효 및 취소 소 제기의 절차	법무부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이혼 신고 및 이혼 의사 확인	행정안전부
한부모가족 지원법	이혼한 한부모 가족 정의 명시	보건복지부

(2) 이혼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

① 이혼예방을 위한 접근

- 결혼에 대한 가족생활 교육
- 부부관계 및 가족생활 질적 향상 교육
- 부부상담 및 치료 교육프로그램

② 이혼 과정상 접근

- 이혼 전 후 가족 상담 및 중재
- 이혼과 관련 된 정서적 문제 등을 도움
- 가족 복지와 개인의 행복에 도움되도록 지원함

③ 이혼가족에 대한 접근

- 한부모에 대한 대책
- 이혼 후 당면한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고려
- 자녀양육프로그램, 심리지지 프로그램 등

☐ 과정에 따른 이혼가족 지원사업 유형

과정	프로그램
이혼 전	상담치료
	이혼 전 교육 워크숍
	아버지 교육 워크숍
이혼	중재
	부모교육
	이혼 전 교육 워크숍
	주말 워크숍- 교육
	아버지 워크숍
	아버지 워크숍
	별거기간 생활보장
이혼 후	성인집단 프로그램
	성인자조집단
	자녀집단프로그램
	이혼적응프로그램
	이혼가족아동프로그램

	아버지집단
	부모역할 감독
	자녀 양육 및 구직을 위한 개입
	이혼 후 관계변화를 위한 개입
	옹호

■ 이혼가족 부모교육 프로그램

구분	목적	내용
1회기	이혼으로부터의 회복과정 이해	- 이혼에 대한 반응 이해하기 - 아동의 애도 과정 - 부모의 도움 방법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별거/이혼에 대한 반응	- 자녀의 연령에 따른 이혼의 반응 - 자녀들이 이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길 - 이혼에 대해 이야기 하기
2회기	도움이 되는 양육기술	- 부모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 부모양육태도 점검 - 바른 행동 다지기 - 화 다스리기 - 나 전달법
	자녀를 진정으로 바라보기	- 자녀의 최대 복리 - 정리하기

2) 이혼가족에 대한 대책

(1) 이혼예방대책

- 결혼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해 봄
- 결혼준비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필요함

(2) 이혼과정상의 대책

- 이혼숙려제도
- 재산분할과 위자료
- 자녀양육비 지급
- 면접교섭권

(3) 이혼 후의 서비스

- 폭넓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일시적으로 한부모가족이 되므로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

제10주차 2차시	
강의주제	재혼 가족
<div>학습 목표</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혼 가족 전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재혼 가족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 재혼 가족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
<div>학습 내용</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혼 가족에 대한 이해 2. 재혼 가족의 실태와 문제점 3. 재혼 가족의 현황과 대책

[학습하기 (1교시)]

1. 재혼 가족에 대한 이해

1) 재혼의 정의

-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이후에 다시 결혼하는 것
- 과부의 재혼은 재가나 개가라고도 함

2) 용어의 정의

(1) 재혼가족

- 계부모가족, 재결합가족, 혼합가족 등의 용어로 혼합사용
- 배우자 한쪽 혹은 양쪽 모두 재혼 이상의 결혼으로 자녀 유무 관계없이 남편과 아래로 구성된 가정 형태
- 계부모가족이란 부모의 한쪽이 친부모로 재혼하기 전 출생한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
- 계부모 가족은 재혼가정의 하위체계임

(2) 가족재구성

- 한 번 혹은 한 번 이상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남성 혹은 여성이 새로운 배우자와 가정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
- 재혼 후 새롭게 얻은 배우자를 계(부)모, 의붓(아비)어미라고 함
- 재혼 시 새 배우자가 데리고 온 자녀를 계자녀라고 하여 의붓이라는 접두사를 사용함

-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에서는 재혼을 실패 이후 다시 하는 결혼이 아닌 새로운 인연을 찾아 새롭게 시작하는 결혼이라는 의미로 '새혼'이라고 정의함

3) 재혼가족의 유형²²²

(재혼부부의 9가지 유형)

유형	자녀유무	자녀와 동거여부	자녀와 재혼부부관계	특징
유형1	부부 양쪽이 무자녀	-	-	배우자의 결혼경험을 제외하고는 초혼부부와 유사함
유형2	재혼 부부 사이 의 출생 자녀	-	부모의 전혼이 자녀와 무관함	
유형3	전혼에서 최소 1명의 자녀	-	자녀의 미성년 여부에 달림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들 o 재혼부부의 일상 생활의 일부가 아님
유형4	재혼부부의 자녀와 전혼자녀	전혼자녀는 동거하지 않음	함께 살지 않는 자녀는 면접권을 갖거나 갖지 않을 수 있음	같이 살지 않은 자녀가 가끔 찾아오는 것을 제외하면 초혼 부부와 유사함
유형5	재혼부부의 자녀는 없고 최소 1명의 전혼자녀	전혼자녀는 동거하지 않음	자녀가 방문할 수도 있고 방문하지 않을 수 도 있음	자녀가 찾아오는 경우 부부생활의 잠재적 참여자임. 양육권문제가 변하면 유형 6과 유사함
유형6	최소 한 명의 전혼자녀	자녀와 동거	-	한쪽 배우자만의 자녀가 재혼부부와 거주하는 유형
유형7	부부양쪽 모두 전혼자녀	자녀와 동거	-	구조의 일면으로 이복 형제가 있는 복잡한 유형
유형8	부부 양쪽 모두 의 전혼자녀와 재혼 부부의 자녀	자녀와 동거	-	형제집단 속에 재혼한 부, 재혼한 모 사이에서 낳은 반이복, 반이부 형제
유형9	부부 양쪽 모두 전혼 자녀와 재혼 부부의 자녀	동거하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자녀가 있음	-	유형 8에서 동거하지 않는 자녀도 있는 가장 복잡한 수준

4) 재혼가족의 특징

- (1) 수많은 상실과 변화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가족으로 탄생
 - 자녀들은 더 이상 생물학적 부모와 모두 함께 살 수 없음
 - 이러한 상실은 자녀들에게 가족 전부를 잃는 만큼의 큰 영향을 줌
- (2) 조화롭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시작을 함
 - 어른과 자녀들은 모두가 개인, 결혼, 가정생활주기가 다른 상태에서 시작함
 - 초혼과 다르게 서로 다른 결혼생활을 경험한 두 가족이 만남
 - 공동의 경험을 만들어 갈 시간이 주어지지 않음
 - 이미 가지고 있던 서로 다른 경험과 역사가 한곳에 얹힘
- (3) 부모와 자녀 모두 이전 가족에서 얻은 기대감을 들고 옴
 - 어른과 자녀 모두 초혼에서 습득한 행동양식과 가치관이 있음
 - 전혼에 따른 다른 역할에 대한 기대감으로 새로운 가족을 시작하게 됨
- (4) 부모 자녀 관계가 새로운 부부자녀 관계보다 먼저 형성됨
 - 각자의 자녀들과 결속, 동맹,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배우자와 자녀들을 만남
 - 재혼하기 전에 이미 형성된 법적, 감정적 관계를 다루면서 시작
 - 초혼보다 복잡한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음
- (5) 자녀들의 기억 속에는 생물학적 부모가 존재함
 - 자녀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생물학적 부모와 결속이 되어있음
 - 생물학적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강하게 남아 있음
 - 재혼 후 적응과정에 어려움을 지속시키는 원인이 됨
- (6) 자녀들은 두 가족의 구성원이 됨
 - 친부와 계모/친모와 계부 두 가족의 구성원이 됨
 - 함께 살아온 생물학적 부모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가 새로 결혼한 사람에게도 자녀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함
- (7) 계부모와 계자녀간 법적인 관계는 전혀 또는 거의 없음
 - 재혼가족은 여전히 재혼가족 내 호칭에 대한 적절한 용어가 부족한 상태
 - 계부모는 계자녀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갖음
 - 법적 규제가 제한적이며 분명한 근친상간의 금기가 없음

- 계부모의 권리와 책임이 분명치 않음

5) 재혼가족의 복잡성

- 초혼 핵가족과 달리 구조적으로 복잡함
- 성인 부부, 계부모와 계자녀 관계, 부모와 친자녀 관계, 전혼 배우자 관계, 의붓 형제들 관계, 친형제 관계 등의 복잡한 관계로 시작
- 서로가 가진 가족의 역사, 가족문화가 다름
- 재혼가족 내의 경험과 기억을 함께 공유할 수 없음
- 가족 간 소외감과 오해를 가지게 되며, 이는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됨

참고 : 박경래. 2021.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 성공한 재혼가족의 특성

- 새로 구성된 가정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현실적 적응
- 상실감과 변화에 대한 감정을 표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 적절한 가족관계의 형성
- 가족 규칙의 재확립
- 가족 간의 상호협력이 필요함

참고 : 강희남. 매일경제 & mk.co.kr

6) 재혼가족의 부모 역할

- 이해와 수용
 - 자녀의 상실감을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해주어야 함.
- 자녀에 대한 객관적 기대
 - 자녀에 대하여 비현실적 기대를 갖지 않아야 함.
- 합의에 따른 자녀양육 참여
 - 친부모와의 관계 인정해주면서 재혼부모가 합의하여 양육에 함께 참여해야 함.

참고 : 주관적아카이브. 부모교육

[학습하기 (2교시)]

2. 재혼 가족의 실태와 문제점

1) 재혼 가족의 실태

(1) 혼인 종류별 건수(2021년 기준)

- 남자의 경우 전체 혼인 중 초혼이 83.7%, 재혼이 16.1%임.
 - 전년대비 초혼은 10.5%, 재혼은 6.6% 각각 감소함.

- 여자의 경우 전체 혼인 중 초혼이 81.3%, 재혼이 18.5%임.
- 전년대비 초혼은 10.6%, 재혼은 6.5% 각각 감소함.
- 남녀 모두 초혼은 77.5%, 남녀 모두 재혼은 12.4%를 차지함.
- 전년대비 초혼과 재혼 모두 감소했으며, 남자 초혼+여자 초혼(-10.6%)이 가장 많이 감소함.

혼인종류별 건수

(단위 : 천 건,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년대비		
										구성비	증감	증감률
계*		305.5	302.8	281.6	264.5	257.6	239.2	213.5	192.5	100.0	-21.0	-9.8
남자	초혼	257.9	256.4	238.1	222.5	216.3	199.5	180.1	161.2	83.7	-18.9	-10.5
	재혼	47.5	46.4	43.3	41.7	41.1	39.4	33.3	31.1	16.1	-2.2	-6.6
여자	초혼	251.5	250.0	232.4	216.8	210.3	193.9	175.0	156.5	81.3	-18.6	-10.6
	재혼	53.9	52.7	48.9	47.4	46.7	44.5	38.1	35.6	18.5	-2.5	-6.5
남(초)+여(초)		239.4	238.3	221.1	206.1	200.0	184.0	167.0	149.2	77.5	-17.8	-10.6
남(재)+여(초)		12.0	11.7	11.1	10.5	10.2	9.8	7.9	7.1	3.7	-0.8	-10.3
남(초)+여(재)		18.4	18.0	16.7	16.2	15.9	15.0	12.8	11.7	6.1	-1.1	-8.6
남(재)+여(재)		35.5	34.7	32.1	31.1	30.7	29.4	25.2	23.8	12.4	-1.4	-5.6

(2) 재혼연령 추이

- 평균재혼 연령은 남자 50.7세, 여자 46.5세로 전년에 비해 남자는 0.6세, 여자는 0.8세 상승함.
- 10년 전에 비해 남자는 4.4세, 여자는 4.6세 각각 상승함. (재혼연령)

(단위 : 세)

연도	남자의 평균재혼연령		여자의 평균재혼연령		재혼연령차이 (남-여)
		증감		증감	
1995	40.39	0.70	35.55	0.58	4.84
2000	42.05	-0.08	37.45	-0.01	4.60
2010	46.11	0.43	41.59	0.50	4.52
2011	46.29	0.18	41.91	0.32	4.38
2012	46.62	0.33	42.31	0.40	4.31
2013	46.75	0.13	42.52	0.21	4.23
2014	47.14	0.39	43.00	0.48	4.14
2015	47.63	0.49	43.46	0.46	4.17
2016	48.20	0.57	43.99	0.53	4.21
2017	48.70	0.50	44.43	0.44	4.27
2018	48.91	0.21	44.61	0.18	4.30
2019	49.63	0.72	45.15	0.54	4.48
2020	50.04	0.41	45.73	0.58	4.31
2021	50.65	0.61	46.50	0.77	4.15

참고. 통계청. 2021년 혼인·이혼 통계

(3) Patricia L. Papernow의 재혼가족 발달단계

■ 환상

- 어른들은 즉각적인 애정과 적응을 기대함
- 아이들은 계부모를 무시하고, 친부모들이 다시 결합하기를 원함

■ 침수

- 환상을 깨달으려고 노력함
- 일이 잘 안 될 것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증가함
- 계부모는 무언가 잘못 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음
- 생물학적 계보를 따라 분열됨

■ 인식

- 계부모는 무엇인가 변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기 시작함
- 친부모는 새배우자와 친자녀 사이에서 갈등하게 됨

- 생물학적 계보를 따라 편이 갈라짐
- 자녀들이 부부 사이의 차이점을 관찰하여 이용함

■ 동원

- 부부 사이에 강한 감정들이 표현되기 시작함
- 계부모들은 변화에 대한 명확한 필요성을 가짐
- 부모는 변화로 인한 상실을 두려워함
- 생물학적으로 나뉘는 구분이 확실해짐
- 자녀가 없는 계부모는 가족 안에서 소외됨

■ 행동

-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부부가 서로 협력하기 시작함
- 가족 구조가 달라짐
- 자녀들은 변화에 저항할 수도 있음

■ 접촉

- 부부가 함께 잘 협동해 나감
- 계부모, 계자녀, 기타 친척들 사이에 친밀한 유대감 형성됨
- 계부모는 계자녀에 대한 명확한 역할을 갖게 됨
- 경계가 확실해짐
- 가족 문제를 다루는 능력이 높아짐

■ 해결

- 재혼 가족의 안정감이 형성됨
- 어려움이 닥치면 이전 단계로 퇴행할 수 있으나, 빠르게 원상 복귀함
- 일상적인 어려움은 매번 나타날 수 있음

(4) 재혼가족의 경제적 변화

① 경제권

- 가정의 경제권은 재혼 부부의 관계를 상징하는 척도로서의 의미임
- 경제적 소득이 높을수록 재혼모와 계자녀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높음
- 재혼모의 입장에서 경제권의 유무가 아내나 모로서 자신의 위치를 가름하는 척도가 될 수 있음
- 남편의 경제력으로 친자녀를 양육하는 재혼 여성은 남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높음
- 많은 여성들은 경제적, 심리적,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재혼 경향이 있음

② 재산분쟁 예방 방안

- 재혼에 따른 재산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혼인 당사자는 혼인 성립 전에 결혼 생활에 따른 부부의 재산 관계에 관한 약정을 할 수 있음(민법 제 829조 제 1항).
-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부재산관계의 불합리와 불명확성을 극복할 수 있음
- 혼인 당사자의 재산 상태와 자녀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결혼

2) 계자녀가 재혼 가족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쟁점과 문제들

(1) 가족역학

- 부모 공동의 갈등
- 생물학적 부모-자녀 유대
- 질투
- 희생양
- 재혼부모의 자녀출생
- 결속력의 강요
- 낮은 결속력 등

(2) 변화하는 적응들

- 변화하는 적응
- 공유되지 않은 규칙들
- 공유된 의례의 부족함
- 결혼 전에 알리지 않은 자녀
- 부모 재혼시의 연령 등

(3) 생활양식의 차이

- 휴일
- 출생 순서 변화
- 사생활의 부족
- 결혼과 또 다른 결혼 간의 기간
- 증가하는 활동 등

(4) 불안정한 제도

- 가족 정체감 부재
- 친족 명칭
- 계부모-자녀 관계 모델 부재

- 표현해야 할 애정의 양
- 애정을 나타내는 방법
- 돈 문제 등

(5) 정서적 반응

- 상실감, 애도
- 재결합의 환상
- 스트레스, 감성 또는 큰 취약성
- 오해 받을 두려움
- 가족 붕괴의 공포 등

(6) 재혼가족 기대들

-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함
- 상당히 높은 기대들
- 핵가족과 같은 재혼 가족
- 구세주 같은 계부모

참고 : 김유나. 감리교신학대학교석사학위논문

3. 재혼 가족의 현황과 대책

1) 재혼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

(1) 서비스 실태

-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적 서비스의 상당한 필요성 대두
- 실제 실시되고 있는 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임

(2) 서비스 실시 기관

-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 한국가족상담연구소
- 건강가정지원센터

2) 재혼가족 서비스 대책

- 재혼가족 상담과 치료
- 재혼을 시작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
- 자조집단
- 재혼생활 안내정보 제공
- 성공적인 재혼 모델링 제공

- 재혼가족캠프
- 사회적인 태도와 변화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함

제11주차 1차시	
강의주제	맞벌이 가족
<div>학습 목표</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벌이 가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맞벌이 가족의 특성 및 유형을 제시할 수 있다. ● 맞벌이 가족의 장·단점 및 문제를 분석할 수 있다. ● 맞벌이 가족을 위한 복지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
<div>학습 내용</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맞벌이 가족에 대한 이해 2. 맞벌이 가족의 특성 및 유형 3. 맞벌이 가족의 장·단점 및 문제 4. 맞벌이 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학습하기 (1교시)]

1. 맞벌이 가족에 대한 이해

1) 맞벌이 가족의 개념

-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일과 양육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새로운 생활방식을 시도하는 부부
- 결혼한 부부가 모두 직업을 가진 경우
-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생긴 가족 형태
- 자아실현의 욕구 충족 및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됨
- 가정경제에 기여 자아만족과 행복감 경험
- 부부역할 변화
 - 역할의 공유
 - 동등한 의사결정
 - 평등한 동반자적 관계유지

2) 맞벌이 가족의 형성배경

(1)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

- 여성의 평균수명이 짧고 자녀수가 많은 시대에는 여성의 삶의 대부분은 출산과 양육의 연속이었음

-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출산율은 급격하게 감소함으로써 자녀양육의 시기는 가족 생활주기의 한 단계에 불과함
- 평균수명의 연장과 동시에 평균수명에서 남녀의 차이나 조기퇴직 사태는 은퇴 후의 문제의 심각성 초래함

(2) 가사노동의 자동화

- 여성의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점차 줄어들
- 여성들은 성취감을 찾아 집 밖의 일을 찾아 나서게 됨

(3)경제적 필요성

- 생계에 꼭 필요한 것 이외에도 삶의 질이나 정신적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상품 출시됨
- 가정에서의 소비기능이 강조되면서 경제적인 필요성에 따른 여성의 취업
- 결혼생활이 안정적인 시기에도 이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경제적 대비

(4) 교육수준의 향상

- 남편의 지위보다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한 성취를 강조하는 교육을 받아왔음
- 개인적인 성취감을 즐겨 가정 밖에서 일하는 것이 더 도전적인 것으로 생각함

(5) 사회적 변화

- 무보수 가사노동보다 내외형적 가치가 높은 임금노동을 선호하는 사회적 변화
- 산업화로 인한 경제성장으로 고용시장 확대 및 여성 친화적인 직업의 증가

참고 : Copyrights@ibabynews.com

2. 맞벌이 가족의 특성 및 유형

1) 맞벌이 가족의 특성

(1) 소득 측면

- 여성의 취업으로 가정의 수입이 늘어남
- 가정의 재정적 여유는 자녀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여성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워킹맘의 긍정적 효과가 커짐
- 소득은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을 따름

(2) 시간효과

-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면 아이가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
- 여성의 (육아) 능력과 엄마 부재 시에 아이가 하는 활동에 따라 달라짐

- 아이와 양질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엄마가 일을 하면 (그렇지 않은 엄마에 비해) 아이가 잃는 게 더 큼
- 양질의 어린이집, 조부모, 아이 돌보미 등의 적극적 도움이 있다면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것임

참고 후 재정리 : <https://www.sisain.co.kr/news>. 2022. 06.

(3) 경제활동측면

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 1980년대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지난 10년간 50%수준에서 정체된 상황임

②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 1980년대 초까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음
- 1980년대 중반 이후 기혼 여성의 취업률이 급속하게 신장됨
- 전체 취업 여성 중 기혼 여성의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음
- 기혼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맞벌이 가족은 보편적인 가족의 형태로 자리잡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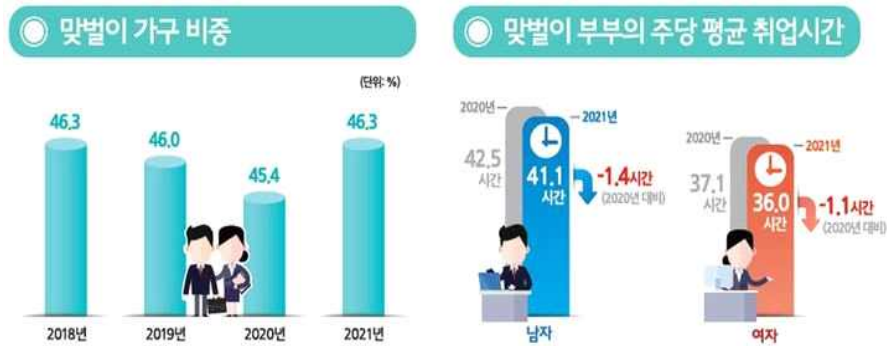
(4) 본인/배우자 돌봄시간

구분별 (1)	구분별(2)	2021			
		여성		남성	
		본인의 집안 일 돌봄(자 녀,환자돌봄) /평일	배우자의 집 안일돌봄(자 녀,환자돌 봄)/평일	본인의 집안 일 돌봄(자 녀,환자돌 봄)/1.7평일	배우자의 집 안일돌봄(자 녀,환자돌 봄)/평일
전체	소계(인)	2.5	1.7	1.5	4.7
규모	100-199	2.3	1.4	1.7	4.2
	200-299	2.6	1.7	1.6	5.0
	300-499	2.7	1.9	1.3	4.7
	500 이상	2.4	1.7	1.5	4.9
업종	농업, 광업, 제조업	2.9	2.0	1.4	5.1
	건설업, 하수 및 폐기물처리, 전기, 안전, 가스 및 수도사업 등	2.7	1.2	1.6	4.6

	개인서비스업	2.3	1.5	1.7	4.4
	유통서비스업	2.5	1.9	1.6	4.2
	사업서비스업	2.5	1.7	1.5	4.9
	사회서비스업	2.2	1.3	1.9	3.6
직급	과정급	2.7	1.8	1.7	5.2
	차장급	2.2	1.4	1.4	4.6
	부장급	2.0	1.2	1.0	4.0
	임원급	0.8	0.5	0.9	2.1

참고 : 통계청 자료(자료갱신일 2023. 02) 참고후 재구성

(맞벌이가구 고용 현황)



참고 : 통계청. 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2) 맞벌이 가구 유형

① 생계 유지형 맞벌이가족

- 가족의 경제적 필요성에 의하여 기혼 여성이 비자발적 취업을 하는 형태

② 내조형 맞벌이 가족

- 가족의 보다 나은 경제적 여유를 위하여 취업을 하는 경우
- 남편의 학업이나 출세를 위하여 여성이 생계를 전적으로 담당함으로써 파생되는 형태로서 취업 함
- 여성의 성역할 태도는 매우 보수적이며 남편에 종속된 위치를 수용하는 형태

③ 자아 실현형 맞벌이 가족

- 중산층 이상 고학력의 여성들이 가사노동의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의미 속에서 취업을 통한 자아를 실현이 목적임

- 현대적인 성역할 태도에 입각하여 평등한 부부관계를 정립하는 형태

④ 여가 활용형 맞벌이 가족

- 주로 중산층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유형
- 경제적 이유, 내조 또는 자아실현 등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취미를 살리고 여가를 활용하기 위하여 작업을 갖고자 하는 형태

[학습하기 (2교시)]

3. 맞벌이 가족의 장·단점 및 문제

1) 맞벌이 가족의 장 · 단점

(1) 전문직 맞벌이 가족의 장점

- 여성의 경우
 - 경제적인 것과 자기표현 측면에서 원할함
 - 높은 자존감과 지적 동질감
 - 남편과 자녀로부터 독립된 자아감
- 남편의 경우
 - 전통적인 부양책임의 완화가 필요함
 - 부모 역할에 직접 참여로 자녀의 욕구 충족이 필요함
 - 늘어난 수입으로 인해 선택의 기회가 넓어짐
 - 가족원의 가사노동 참여 증가

(2) 전문직 맞벌이 가족의 단점

- 아내의 남편에 대해 부정적일 때: 과중한 역할에 대한 부담감
- 자유시간이 감소와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감, 죄책감 생김
- 아내의 성공에 대한 남편의 정체감, 자존감의 위협

2) 맞벌이 가족의 문제

(1) 첫째, 자녀양육 및 교육 문제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취업 여성의 경우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호소
-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자녀를 보살피는 모든 책임을 1차적으로 여성에게 기대하고 있음
- 취업 여성들을 이중고를 겪고 있음

(2) 둘째, 가사역할 및 분담 문제와 직장생활의 스트레스

- 가사역할 또한 여성의 역할로 간주돼 온 부분으로 아직도 여성의 역할로 기대하고 있음
- 취업여성들은 가사노동이라는 또 하나의 노동에 시달리게 됨
- 일부에서는 함께 가사를 분담해 해결되고는 있음
- 남자에게 가사노동을 기대하는 문화가 정착이 돼 있지 않음
- 맞벌이 가족의 어머니들은 직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불만족을 느낄 경우 자녀와의 대화를 거부하거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대할 수 있음

☒ 맞벌이 부부의 부모교육

- 질 높은 상호작용을 통한 자녀와의 긴밀한 친밀감 형성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 자녀들과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함
 - 양적인 시간보다는 질적인 시간을 공유하여야 함
 - 죄책감은 부모 자신의 자아존중감이 떨어질 뿐 아니라, 자녀 양육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없음
- 여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부부의 역할을 분담하기
 - 주말이나 공휴일 등 여가시간을 활용해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함
 - 여성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공감하면서 확실한 가사 분담과 양육 분담이 이뤄지도록 함
 - 직장에서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고민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필요함

참고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2021. 04.

4. 맞벌이 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1) 맞벌이 가족을 위한 서비스 현황

(1) 아이돌봄지원사업

① 목적

-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아이돌봄지원법 제1조)

②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구분

☐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 공백 가정 기준

-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
- 다자녀 가정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만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기타 양육 부담 가정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 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부 또는 모의 군복무, 재감 등

③ 지원내용

- 시간제 돌봄서비스 (기본형 서비스 내용)
 -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동행 등 돌봄 제공
- ※ (종합형) 기본형 돌봄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하여 돌봄 제공
- (지원비용)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시간) 연 840시간 이하 /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 ※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 서비스이용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시간제서비스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22년 기준))

【적용대상 : 일반가정】

유형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시간당 10,550원)				종합형 (시간당 13,720원)			
		A형		B형		A형		B형	
가형	75% 이하	8,968 원	1,582원	7,913원	2,637원	8,968원	4,752원	7,913원	5,807원
나형	120% 이하	6,330 원	4,220원	2,110원	8,440원	6,330원	7,390원	2,110원	11,610원
다형	150% 이하	1,583 원	8,967원	1,583원	8,967원	1,583원	12,137원	1,583원	12,137원
라형	150% 초과	-	10,550원	-	10,550원	-	13,720원	-	13,720원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서비스 내용)

- 생후 3~36개월 영아 대상 이유식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종일 돌봄 제공
아이가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이용가정과 협의한 경우 서비스 이용 가능

(지원비용)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시간)

- 월 60~200시간 이내 / 1일 최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이용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영아종일제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22년 기준))

【적용대상: 일반가정】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0,55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8,968원	1,582원
나형	120%이하	6,330원	4,220원
다형	150%이하	1,583원	8,967원
라형	150%초과	-	10,550원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 야간(오후 10시 ~ 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③ 신청절차 및 방법

■ 공통사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 문의처 : BC카드 1899-4651(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 정부 지원 가구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 단,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 부담)

-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 이용, 대표전화 1577-2514

■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시간제, 영아종일제 공통), 응급처치동의서는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시 온라인으로 작성·제출
-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
취업한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

참고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2)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사업

① 지원대상

- 일하는 엄마·아빠 및 그 가족

② 지원내용

■ 직장생활지원

○ 직장고충상담

- 직장과 가정생활 양립제도 활용 관련 고충 상담(컨설팅 포함) 제공

○ 워킹맘·워킹대디 소통 커뮤니티 지원

- 공동육아나눔터 주말 운영
- 전업맘·워킹맘워킹대디, 워킹맘 및 워킹대디 간 네트워크 구축

■ 가정생활지원

○ 자녀양육 및 가족문제 관련 상담

- 임신·출산, 자녀 양육 및 가족문제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 지역 내 돌봄서비스 이용, 자녀학교생활, 문화프로그램 참가 등 정보 제공

○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및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운영

- 결혼·임신·출산·자녀육아 등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 가족관계 개선 교육프로그램 : 자녀와 대화 방법, 가족 간 소통, 아버지 교육 등 맞벌이가족의 부모 역량 강화 프로그램

■ 신청 방법

-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www.familynet.or.kr) 회원가입
- 회원가입 후 프로그램 신청지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선 또는 방문 신청 가능
참고 : KDI. 경제정보센터

(3)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① 개요

■ 지역 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기능 보완 및 이웃간 돌봄 품앗이 연계 활동 지원

■ 공동육아나눔터 :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소통하는 공간,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장난감과 도서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 지역사회 자녀돌봄 사랑방

■ 가족품앗이는 이웃간 육아정보를 나누고 각자의 재능과 장점을 살려 학습활동, 체험활동, 등하교 동행 등을 함께하며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이다

②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부모 및 자녀)

※ 맞벌이 및 비맞벌이 상관없이 이용 가능

③ 지원내용

■ 이용시간

- 평일 10:00 ~ 18:00/ 일부 지역 평일 야간, 주말 운영

■ 서비스 내용

-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장난감 및 육아 물품 지원)
- (조)부모 및 양육자·자녀에게 육아 정보 제공 및 소통 등 정보나눔 기회 제공, 동화구연 등 상시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장난감 및 도서 대여
- 가족품앗이 유형별 그룹활동 운영 지원(전체모임 및 소모임 등)
- 등하교동행품앗이, 체험활동품앗이, 놀이품앗이, 학습품앗이, 예체능취미활동품앗이 등
- 품앗이 리더 양성교육 지원

■ 신청절차 및 방법

- 인근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위치, 운영시간 등 확인하여 방문시 가입 신청서 작성 또는 별도 절차없이 이용 가능
-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및 가족품앗이 활동 관련 문의
- 건강가정지원센터 대표 누리집 : www.familynet.or.kr
- 전화문의 : 1577-9337 및 지역 소재 건강가정지원센터

참고 : 여성가족부

(4) 일·생활균형 수혜정보

-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은 일과 생활에 균형이 있는 삶을 의미함
- 업무를 하느라 모든 시간과 힘을 쏟아부어 나만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퇴근 후에 개인의 삶과 소중한 일상이 보장되는 것을 워라벨이라 함
- 일·생활 균형으로 건강한 가정, 행복한 직장,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음

2) 맞벌이 가족을 위한 복지 대책

(1) 가족 환경의 변화 측면

① 맞벌이 부부의 의식변화

- 가정에서 여성의 전통적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탈피
-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한 역할의 분담과 공유

② 가사노동의 사회화

- 취업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마련
- 자녀를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보급

- 직장 근무의 탄력적 조정

(2) 사회환경의 변화 측면

① 법 제도의 강화

- 여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고용기회의 균등, 취업여성의 근로조건 개선 등의 개정
- 제정된 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 강화 필요
- 기혼 남성의 자녀양육 참여를 위한 출산 육아 휴직제의 지원

② 직장 내 성차별 극복

- 승진, 직무배치, 업무 등에서 성차별 불이익 근절
- 직장에서 남녀간의 근무 여건과 관행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함

③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

- 지역사회나 사회단체의 가족상담소 및 상담전화 등의 시설과 프로그램 지원
- 가정복지사의 정책적 양성 필요
- 가족생활교육
 -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 맞벌이 부부의 생활, 역할분담, 의사소통 등

제11주차 2차시	
강의주제	1인 가족
<div>학습 목표</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청년과 노인 1인 가족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 1인 가족의 서비스 현황과 지원정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div>학습 내용</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인 가족에 대한 이해 2. 청년 · 노인 1인 가족의 실태 3. 1인 가족의 서비스 현황과 지원 정책

[학습하기 (1교시)]

1. 1인 가족에 대한 이해

1) 1인 가구의 개념과 특징

(1) 1인 가구의 정의

-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를 말함
-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말함

(2) 1인 가구의 특징

- 혼자서 생활하는 가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부족 사회, 씨족 사회, 대가족, 핵가족 등 다른 가족 형태와는 달리 개인 단위로 가구가 정의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임
- 196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등장한 핵가족화보다도 더 간소화, 단순화된 형태의 가구임
- 한 집, 혹은 아파트, 혹은 하나의 공간에 1인이 홀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함
- 고시원이나 원룸, 오피스텔은 해당되나 단체생활 성격이 있는 회사나 학교 기숙사 생활은 보통 1인 가구로 포함시키지 않음
- 기러기 아빠나 이혼 후 혼자 사는 사람, 사별한 사람, 노인 등도 폭넓게 해당 됨



■ 1인 가구 문제의 본격적 이슈화

- 2010년대부터 임
- 2010년 이전은 가정환경이나 학교, 직장 문제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독립해 살았음
- 이전과는 달리 자발적으로 1인 가구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임

■ 한국에서의 1인 가구

- 1960년대에도 이미 1인 가구가 등장
- 본격적으로 늘어난 것은 민주화 이후인 1992년 쯤부터임
- 1997년 IMF국제금융으로 시작된 장기 불황으로 미혼, 만혼, 비혼 등이 증가함
-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개인주의가 확산된 것도 1인 가구의 확산을 부채질함

(3) 발생원인

- 다양하여 한 가지로 정의 내리기 어려움
- 자신의 삶과 가정 및 직장을 둘러싼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 자의든 타의든 '혼자의 삶'에 빠져드는 인구로 빠르게 편입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음
- 청년 독신자의 경우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음
- 개인주의의 확산, 인권의식에 대한 의식 증가, 각종 성격 이상자의 증가 등

(4) 사례

- 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고향이나 연고지와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경우
- 처음부터 독신으로 생활하기를 원했던 사람
- 결혼, 연애를 원하지만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지 못 함
- 이혼
- 사별
- 인간관계에 스트레스를 느끼거나, 인간관계로 상처받은 경험으로 인해 독신 생활을 선택함
- 처음부터 고아원, 보호소에서 성장한 고아
- 독거 노인의 증가
 - 자녀와 가치관 충돌, 대립 등으로 서로 연락을 끊고 남남처럼 살아감
 - 기성세대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가족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함
 - 젊은 세대는 저축과 자기 계발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함
- 인간관계의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인간관계에 스트레스, 피로감을 느낌
- 인간관계나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 유형의 사람들이 증가함

☐ 0.5인가구

- 1인 가구의 변형형
- 거쳐조차 고정되어 있지 않음
- 평일에는 학교나 직장 근처에서 숙식함
- 주말에 가족이 있는 본가로 이동함
- 잦은 출장이나 근무지 변경 등으로 정착해서 살 여지가 없는 경우임

(5) 인식

- 기성세대
 - 가정을 이루기 전의 과도기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음
 - 1인 가구가 정상적인 가정의 형태가 아니라고 간주하는 경우가 상당수의 생각임
 - 고전적인 의미로서의 가정만을 가구로 인정하며, 가정에서의 성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함
 - 여성 독신자의 경우 성격 억세거나 독하다는 뒷담화가 오감

- 남성은 노총각 타이틀을 달며 내조해주는 안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림.

■ 청년층

- 젊은 세대는 1인 가구를 가정의 한 형태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편임
- 개인주의의 영향으로 스스로 1인 가구의 삶을 선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임
- 사회적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인 가구로 사는 경우가 여전히 많음
- 개인적인 삶을 위한 시간 부족과 가정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에 투자할 선택권 부족함

참고 : <https://namu.wiki>

2) 현대사회 1인 가구의 생활 패턴

■ 혼자즐기는 문화생활

- 1인 가구의 특성 중 하나는 바로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혼자 산다는 점임
- 혼밥, 혼영, 혼술부터 소비 활동과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나홀로 문화가 확대되고 있음
- 가성비 소비, 가심비 소비를 추구하고 있음
- 나만의 공간을 가장 중요시 하므로 넓은 곳으로 이사하고자 하는 욕구도 높아지고 있음
- '홈카페'를 비롯해 나만의 인테리어 소품으로 집을 꾸미는 '홈퍼니싱', 집에서 즐기는 트레이닝 '홈트' 등 다양한 변화가 나타남
- 편의점을 주로 이용하는 문화와 온라인 쇼핑, 가정간편식 등 다양한 1인 가구 문화가 나타나고 있음

■ 편리함을 추구하는 1인 가구 '편리미엄'

-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편리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에 대한 비용도 아끼지 않음
- 배달 어플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음식 등을 주문함
- 식료품 등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과 어플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도 인기임
- 새벽배송을 비롯해 즉시배송, 백화점 음식배달 서비스, 편의점 배달 서비스 등 경쟁이 치열함
- 가사노동을 줄여주는 편리미엄 가전제품을 선보임
- 스마트폰과 AI를 통해 가전제품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홈' 서비스도 편리미엄의 좋은 예임

■ 소확행을 기점으로 시작된 소형화 시대

- 1인용 피자를 비롯해 1/4로 조각낸 수박, 1인용 빙수 등 1인 가구 맞춤 상품의 출시

- 소형가전제품의 인기는 높아지고 있으며 가전기기의 대형화 선호 현상이 나타남

참고 : <https://gnews.gg.go.kr/news>

2. 청년 · 노인 1인 가구

1) 주요 연령집단별 1인가구 비율

단위 : %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15.5	20.0	23.9	27.2	27.9	28.6	29.3	30.2	31.7	33.4	34.5
20~30대	6.5	8.2	9.0	9.6	9.7	9.8	10.1	10.6	11.4	12.1	12.3
60~70대	4.4	5.3	6.3	6.6	7.0	7.4	7.7	8.0	8.5	9.1	9.5

참고 : 통계청, 「인구총조사」

(1) 1인 가구 등록

- 주민등록세대는 2347만 2895가구다. 전년 대비 1.64% 증가
- 가구원수로 나눠보면, 1인 가구가 946만1695세대로 가장 많았음
- 1인 가구 비중이 세대 유형 중 40%를 넘었는데 이는 통계 집계 이후 처음임
- 1인 가구 연령대별은 70대 이상이 18.6%로 가장 많았고, 이후 60대(17.8%), 50대(17.1%) 순이었음

참고 : 행정안전부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

(2) 1인 가구 증가원인

- 혼인율감소
- 초혼연령지체
- 이혼 독신가구 증가
- 이혼이나 별거에 따른 단독가구의 증가
- 고령화에 따른 단독가구 증가

(2) 청년 1인 가구의 증가 원인

- 젊은이들 결혼 기피
- 증가하는 이혼

■ 자녀 요인

- 자녀가 20대에 이르면서 부모를 떠나 독립하려는 경향이 심해짐
- 혼자 수도권으로 혹은 지방의 대도시로 직장이나 공부를 위해 오는 젊은이들이 급증

참고 : 미래한국 Weekly(<http://www.futurekorea.co.kr>)

(3) 청년고독사

- 구직실패와 1인 가구, 청년 고립생(生) 원인
- 일자리가 없으니 사회와 단절된 '고립생(生)'을 겪음

참고 : KBS 뉴스. 2021.11.03

(4) 위급상황 대처 문제

- 위급상황 대처 어려움'(32.5%)이라는 답이 가장 많음
- 2018년 같은 조사에서 이 항목을 꼽은 응답자는 16.7%였음
- '외로움'(23.3%)나 '경제 불안감'(20.3%) 등 순으로 나타남
- '위급상황 대처 어려움'에 대한 곤란함은 나이가 적을수록 큰 것으로 나타남
- 청년층(19~34살)은 42.1%가 이 항목을 곤란한 점으로 꼽아 중장년층(35~64살 · 24.5%)이나 노년층(65살 이상 · 20.4%)보다 두배 가량 많았음

참고 : <https://www.hani.co.kr>.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2021. 04.

2) 노인 1인 가구

(1) 노인 1인 가구의 개념

- 만 65세 이상으로 혼자 거주하는 노인을 말하며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과 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

(2) 노인 1인 가구 현황

- 65세 이상 고령층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은 배우자와 자녀 없이 홀로 사는 것으로 조사됨
- 65세 이상 784만 6000명 가운데 21.2%인 166만1000명이 1인 가구였음
- 고령층 1인 가구는 2015년 122만 3000 가구에서 5년 사이에 43만 8000가구 (36%) 증가
- 이는 노인 요양 시설 등 집단 가구에 거주하는 고령층을 제외한 수치임
- 80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은 47만 가구로 2015년(31만3000가구)보다 50% 급증함

- 건강 상태나 경제 상황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고령일수록 1인 가구가 더 빨리 늘고 있음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곤란한 점)



(3) 노인 1인 가구 주거형태

- 고령 1인 가구의 주거 형태는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임
- 48.5%가 단독주택에, 10.3%가 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 아파트에는 36.7%가 거주함
- 전체 일반 가구의 51.5%가 아파트에 살고, 30.4%가 단독주택에 사는 것과 다른 양상임

참고: <https://www.chosun.com/economy>. 노인주택조사 현황. 2021. 08.

[학습하기 (2교시)]

3. 1인 가족의 서비스 현황과 지원정책

1) 청년 1인 가구의 정책지원

(1) 주택

- 1인 가구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정책 부족한 실정임
- 청년층 위주의 주거비 지원제도를 저소득 무주택 노년 가구로 확대
- 상환 부담을 줄일 방안 마련
- 주거자금 지원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개선 등

(2) 사회서비스

- 사회서비스의 민간 주도로 혁신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
- 청년, 맞벌이, 1인 가구 등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공급할 방침임

(3) 주거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SH공사 등에서는 행복주택, 원룸형 임대주택, 청년협동조합 공공주택, 희망하우징, 두레주택, 대학생 전세 임대 등이 공급 지원되고 있음

■ 행복주택

-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중 60~80% 수준인 저렴한 임대료가 특징임
- 주거급여 수급자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도 입주 가능하며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함

■ LH청년 전세임대주택

- 만 19~39세 청년이 지원 가능하며,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이 입주할 수 있음
- 거주 기간은 최초 임대 기간 2년으로, 자격에 따라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음
- 전세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1억 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지역은 8,500만 원까지임

■ 사회적 주택

- 청년협동조합 등 사회단체를 통해 운영함
- 서울과 경기도의 주택을 LH나 SH가 매입해 사회단체를 통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39세 이하의 사회초년생이 지원할 수 있음

참고 : <https://gnews.gg.go.kr/news>. 2022. 06

2) 1인 가구의 정책지원 및 서비스

(1) 주거지원

-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 및 보금자리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음
-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사람은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음

(2) 안전 지원

- "성범죄자 알림e"는 해당 읍, 면, 동을 검색해 지역별로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성명, 사진,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시, 신체정보 등)뿐만 아니라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안내 정보를 제공
- 저녁취약시간(평일 밤 10시 ~ 새벽 2시)에 여성과 학생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여성·학생 안전귀가 지원 서비스를 제공
- 1인 가구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다세대 주택가와 원룸촌을 중심으로 무인택배보관함을 운영하고 있어 낯선 사람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택배를 받을 수 있음

-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폰,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를 통해 신속하게 112신고 센터(또는 보호자)에 긴급상황과 신고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의 기회를 무료로 지원(2년에 1회)하고 있음
- 홀로 사는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제공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3) 재정 지원

-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생활비를 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이용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는 여성 일자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재아카데미 등 운영), 청년 일자리(청년취업아카데미, 취업인턴제, 창직인턴제 등 운영), 노인 일자리(고령자 고용정보센터, 노인일자리사업,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 등 운영)를 지원하고 있음
-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 있음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음

(4) 여가 지원

- 65세 또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고 친목도모·취미생활 등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노인복지관,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음

참고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2년 6월 기준

(5) 세계적 추세와 대응방안

- 선진국들의 경우 주거, 세금 등의 측면에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음
- 새로운 '1인 가구'라는 삶의 형태를 새로운 변화의 물결로 받아들이고 대응하는 것임
- '코하우징(Co-housing)'과 '쉐어하우스(Share House)'의 주거형태
 - '코하우징(Co-housing)'은 거주자의 개인적인 생활이 보장된 공간과 공동생활의 이익을 위한 공동공간이 함께 계획된 주거형태
 - '쉐어하우스(Share House)'는 둘 이상의 사람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하는 주거형태이며, 대체로 집주인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가구와 집기를 구비해둔 상태에서 공유할 인원을 모집해 함께하는 경우가 많음

(6) 가장 시급한 정책

■ 건강문제

- 혼밥, 혼술, 편의점이나 배달음식 등 잦은 간편식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
- 아플때 옆에서 챙겨주거나 위급 시에 119를 불러준다든지 병원에 같이 동행할 사람들이 필요함

■ 안전문제

- 스토킹 관련사건 발생
- 안전 위험이나 안전에 노출이 될 수 있음
- 1인 가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조건임
- 1인 가구가 우리 사회에서 파편화되고 또 홀로 고립되어 있음

참고 : 시사오늘(시사ON)(<http://www.sisaon.co.kr>)

제12주차 1차시	
강의주제	한부모 · 미혼모 가족
<div>학습 목표</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 가족에 대해 이해하고, 한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 ● 미혼모 가족에 대해 이해하고, 미혼모 가족을 위한 복지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
<div>학습 내용</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부모 가족의 이해, 한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2. 미혼모 가족의 이해, 미혼모 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학습하기 (1교시)]

1. 한부모 가족의 이해, 한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1) 한부모가족의 이해

(1) 한부모가족의 개념

- 부모 중 한쪽이 부재
- 부모가정, 편부모가족, 편부모가구 등 다른 명칭으로 혼용
- 가족복지의 관점에서는 한부모가족으로 불림
- 모자복지법에 근거한 행정적인 관점에서는 편부모가정
-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는 조사 단위를 편부모 가구로 쓰고 있음

(2)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 교정시설 ·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가출한 사람

☒ 우리나라의 경우

- 한부모가족은 거의 편모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통사회에서도 한부모가족은 존재하였지만 친족이 가족 구성원의 생활을 통제하고 가족 내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가족의 해체를 억제시켜 왔음
- 예전에는 전쟁에 의해 부모의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로 한부모가족이 됨
- 현대에는 질병과 사고에 의해 한쪽 부모의 사망이 증가하여 한부모가족이 됨

(3) 현대사회에서 한부모가정의 아동이 발생하는 사유

- 부와 모의 사망에 의한 한부모가족의 아동
- 이혼에 의한 한부모가족의 아동
- 유기에 의한 한부모가족의 아동

(4) 한부모가족의 문제

① 경제적 문제

- 모자가족은 부의 상실과 함께 소득의 상실 초래됨
- 모자가족은 주택문제, 모의 취업문제도 동반됨
- 부자가족의 대다수는 저학력과 빈곤상태에 있음
- 부가 자녀양육과 집안일을 감수해야 함
- 부의 직업선택의 기회가 적아지고 이직 가능성 높아짐

② 심리사회적 문제

■ 역할갈등

- 한부모가족의 부모나 자녀 모두 역할의 혼란감을 경험하게 됨
- 자녀는 성장 과정에 부모의 부재로 동일시 대상이 없어짐으로써 발달장애 또는 역할 동일시에 대한 학습 결핍 등이 발생

■ 자녀의 부적응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자녀는 공격적 · 일탈적 행동이 많이 나타남
- 모자가족에서 부의 부재는 부가 자녀에게 행사해 오던 행동에 대한 통제력, 감독권이 갑자기 사라져 자녀는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음
- 부자가족에서 모의 부재는 자녀가 감정이나 애정을 표현하는 등 표현적 경험을 가질 기회가 박탈되어 가족 구성원을 비롯한 타인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상실감과 소외감

- 변화된 가족생활로 인해 정서적 ·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절망감, 책임감, 슬픔, 스트레스 등 부정적 정서반응이 지배적으로 나타남
- 한부모가족의 정서적 문제는 사회적 지지체계의 부족에서도 비롯되며 실제 친족간의 지원의 감소도 있음

③ 한부모가족 아동의 문제

■ 모자가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 소득의 감소와 주택문제 등의 경제적 문제
- 심리적 문제
-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자녀가 겪는 어려움
- 자녀의 부적응에 따른 가족 내 긴장 갈등
- 모가 취업전선에 나서지만 주로 저소득 영역에 취업할 수 있음
-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유발시 자녀에게 영향을 줌
- 가족 내에서의 역할과 지위의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의 스트레스 발생

■ 부자가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 가사관리의 문제
- 자녀양육의 문제
- 부자가족의 심리적 위축
- 가사관리에 대한 부의 스트레스 가중
- 직장이동과 전환을 가져올 수 있어 경제적 문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경험함
- 불안, 학교생활 부적응, 방임, 학대 등
- 사회의 왜곡된 인식 및 낙인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함

2)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1)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 한국전쟁 이후

- 전쟁미망인의 보호·지원을 위한 모자보호시설 설치로부터 시작함

■ 현재

- 한부모가족 지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보험법으로 이루어짐

- 한부모가족 중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도 지원대상에 포함됨

-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 학습 시 연 154만 원 이내에서 학습비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은 2012년도에 한부모의 정의 항목에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을 더 추가함

① 한부모가족 지원법

- 1989년 모자복지법 제정을 통해 모자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아동교육비, 아동부양비 등 복지급여 지급과 복지자금 대여 시작

- 1992년 저소득 여성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실업고교생 자녀에 대한 학비 및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양육비 추가 지원
- 1995년 자녀지원이 남성 한부모가족까지 확대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업기반 조성을 위한 장기저리 복지자금 대출 사업 실시
- 1998년 모자복지위원회 폐지
- 2000년 고교생의 학비지원이 실업계에서 인문계까지 확대
- 2004년 무상교육 확대로 중학생 자녀의 학비지원 중단
- 2007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하며 아동의 정의 중 취학 중인 경우를 20세에서 22세 미만으로 보호기간 연장
- 2008년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
- 2009년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8세 미만에서 10세 미만으로 재확대

②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법

- 부자가정의 증가로 기존의 모자복지법이 2003년 모 · 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됨
- 2007년 모 · 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됨

☒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

- 부모의 사망이나 정신 및 신체적 장애 등을 이유로 조부 또는 조모와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을 포함시킴
- 취학아동을 18세 미만에서 22세 미만으로 확대함
- 고용촉진을 위해 부모의 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급 의무화함
-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기능 재분류 등을 내용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됨

■ 사회보험

-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일 경우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일 경우 한부모가 보험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경우 해당 사항 없음
- 배우자의 사망에 의한 한부모가 아닌 경우 사회보험으로부터 소득보장을 위한 지원은 제한적임

■ 공공부조

- 저소득층일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원받음
- 생계지원과 자활 및 고용지원이 해당됨
- 대상이 극빈층에 국한되어있음

-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 부족함

한부모가족 지원법으로 저소득층 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원받며 생계지원과 자활 및 고용지원을 보장하는 것을 공공부조라고 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제1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수립함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설정하여 한부모가정에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③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은 1989년 모자복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모자복지사업으로 시작됨
- 1989년 이후 모자가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부자가정을 지원함
- 2007년 65세의 고령자들과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족도 보호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됨

☒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경제적 지원)

구분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자복지법	기타
소득 보장	▶ 국민연금 -유족연금 -유족일시금 -배우자(이혼)연금	▶ 생계급여 ▶ 긴급급여 : 임시생계급여	▶ 시설거주자에 한하여 생계비지원 ▶ 시설거주자퇴소시 자립 정착금지원 ▶ 시설거주자 창업준비 복지자금 융자	
주거 지원		▶ 주거급여 : 주거안정지원 이나 전세자금 대여	▶ 일정기간 시설보호(모 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우선권	
고용 지원		▶ 자활급여 : 직업훈련 및 알선, 자활후견 및 자활공동 체, 공동작업장 등 다양한 방안모색 ▶ 생활자금융자	▶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직업훈련 기간 중 가계보 조수당 ▶ 공공시설의 각종 매점/ 시설운영권	직업훈련과 알선을 위한 상담 소 설치

(경제적 외 지원)

구분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자복지법	기타
건강 및 보건	건강보험 저소득 층 의료보험제도 (매우제한적)	별도의 법에 의하여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 전액 지원. 2종 수급권자 20% 본인부담		
보호 및 양육		▶ 교육급여:입학금과 수업료 지원 ▶ 해산급여:출산시 ▶ 장제급여	▶ 아동양육비지원:보조 비 ▶ 학자금지원 ▶ 시설거주자는 방과후 지도와 아동급식비 추 가지원 받음	▶ 보육비용 차등지원 ▶ 자녀학 습지도 및 방과후 프 로그램지원
심리 정 서 적 지 원			한부모가족 사회적 기 능 강화위해 홍보, 상담, 교육, 결연사업추진	여 성 단 체, 자원봉사단 체 중심 활 동지원

출처 : 한부모가족 연구소 참고 후 재구성

④ 드림스타트

■ 사업의 취지

- 빈곤층 아동에게 교육, 복지적 측면에서 동등한 출발선을 마련해주기 위함
- 동등한 출발은 가난의 대물림을 예방하는 공공복지 프로그램임
- 민간 차원에서 2004년 5월 우리 사회 모두가 빈곤층 아동의 출발을 도와주자는 시민운동 형태로 'We Start'가 먼저 시작됨
- 2007년 정부에서 공공 차원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취지로 'Dream Start' 사업을 실시 함
- 소득양극화에 따른 정보격차 및 학습격차 심화로 빈곤의 세습화와 방지를 위함
- 지역사회 보건복지협력 파트너십 구축·활용을 통해 빈곤아동의 문제를 조기 진단·치료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자 실시하는 사전·예방적 차원의 아동복지사업임

■ 선정 및 지원과정



■ 서비스 내용 및 프로그램

서비스 내용	프로그램(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신체발달 증진 · 건강한 생활을 위한 건강검진 및 예방, 치료 · 아동 발달에 필요한 신체/건강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영양교육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의사소통 및 기초학습 능력 강화 · 맞춤형 인지/언어 서비스를 통한 아동의 감성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학력검사, 기초학력배양, 경제교육, 독서지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존중감 및 긍정적 성격 형성을 위한 정서발달 서비스 제공 · 사회적 발달 및 아동 권리 신장을 위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성발달프로그램, 아동학대예방, 심리상담 및 치료, 율동가면 연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자녀 상호작용 및 적합한 교육환경을 위한 부모 역량 강화 · 부모의 유능감 및 자존감 강화 · 부모의 양육기술 지원 ·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 및 양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교육, 가족상담 및 치료, 부모취업지원, 산전산후관리 등

참고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학습하기 (2교시)]

2. 미혼모 가족의 이해, 미혼모 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1. 미혼모가족의 이해

1) 미혼모가족의 개념

- 미혼 상태에서 혼전 임신 및 출산, 인공임신중절과 별거, 이혼, 사별 상태에서 혼전 임신 및 출산, 인공임신중절과 별거, 이혼, 사별 상태에서 배우자와 관계없는 아이를 가진 경우
- 사전에서의 정의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 절차 없이 아기를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

■ 법적인 측면의 개념

-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하여 분만 한 여성
- 혼인한 기혼여성이 이혼, 과부 등의 상태에서 법적 배우자가 아닌 남성과의 관계에 임신했을 경우
- 혼외의 경우인 독신 여성이 인공수정한 경우

미혼모가족은 미혼 상태에서 혼전 임신 및 출산, 인공임신중절과 별거, 이혼, 사별 상태에서 혼전 임신 및 출산, 인공임신중절과 별거, 이혼, 사별 상태에서 배우자와 관계없는 아이를 가진 경우 또는 정당한 결혼 절차 없이 아기를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의 가족이다.

2) 미혼모가족의 발생원인

(1) 정신분석학적 접근

- 개인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갈등에 의한 것으로 보는 관점

(2) 심리학적 접근

- 충동성, 초자아 발달의 결함, 성에 대한 불안, 가족 간의 의사소통 장애에 의한 것

(3) 사회문화적 접근

- 사회문화적 상황이 미혼모 발생을 조장하는 것
-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가 미혼모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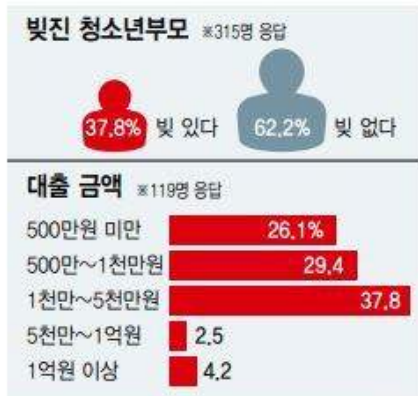
(4) 성 행태적 접근

- 누구라도 혼전 성행위를 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며 즉, 성 지식과 성 태도, 성욕이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

3) 미혼모가족의 문제

(1) 10대 미혼모의 문제

- 학교 중퇴, 저임금 업종에 종사, 건강, 인지문제 등에 열악함
- 자녀양육 의사의 여부, 경제적 문제, 부모와의 관계, 결혼 의사의 여부 등
- 정신적, 경제적으로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임
- 가정과의 결별, 산전 산후 관리의 문제, 사회적 고립 등



참고 : 한계레신문:2020-01

(2) 미혼모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 사생아라는 오명을 들으며 자라게 될 수도 있음
-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학업성취도가 비교적 낮고, 비행 청소년이 될 우려가 있음

(3) 미혼모의 부모가 받는 영향

- 자녀의 임신으로 인한 실망과 충격을 느낌
- 손자의 양육 문제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음

(4) 미혼모에게 미치는 영향

- 가족으로부터의 소외감, 책감을 갖게 됨
- 경제적,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게 됨
- 자녀를 입양시키게 되는 경우 친모증후군 증세를 보이기도 함

(5) 미혼모(부)가족을 위한 서비스

- 미혼모(부)와 관련된 법조항

- 헌법, 민법, 사회복지법,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입양특례법,모자보건법, 청소년기본법 등이 있음

- 미혼모(부)가족복지서비스

- 예방적차원 : 성교육 상담실 운영,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을 통한 성교육 실시
- 사후서비스 : 시설보호서비스

2. 미혼모(부)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1) 미혼한부모만을 위한 제도가 필요

- 미혼한부모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시설위주의 지원정책이 현실적응력을 떨어뜨릴 있음
- 미혼모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제도화되어야 함

2)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통합지원서비스로 전환되어야함

- 대부분 기간이 종료되면 준비되지 않은 채로 퇴소하게 됨
- 지역사회 내 단체, 기관,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통한 자립지원 필요함

3) 미혼한부모의 학습권 보장

- 청소년 미혼한부모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학업 중단 현상임
- 학업의 중단은 빈곤의 대물림과 가족해체의 위기를 가져옴

4) 원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지원

- 원가족은 미혼 부모들에게 심리적 물질적 차원에서 중요한 지지원이 될 수 있음
- 상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가족 상담이 필요함

제12주차 2차시	
강의주제	외동이 · 조손 가족
<div>학습 목표</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동이 가족에 대해 이해하고, 외동이 가족을 위한 복지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 ● 조손 가족에 대해 이해하고, 조손 가족을 위한 복지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
<div>학습 내용</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동이 가족의 이해, 외동이 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2. 조손 가족의 이해, 조손 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학습하기 (1교시)]

1. 외동이 가족의 이해, 외동이 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1) 외동이 가족의 이해

(1) 외동이의 개념

- 부부 사이에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 어린이
- 아동의 성에 관계없이 한 가정에 자녀가 하나뿐인 자녀
- 한 가정 내에서 형제나 자매가 없이 지내는 자녀

(2) 외동이 가족의 발생원인

- 산업화로 인한 인구억제정책
- 가치관의 변화와 여성이 사회진출
- 자녀 양육비 증가

(3) 외동이 가족 아동의 장단점과 문제

■ 장점

- 형제 간 경쟁심이나 질투에 의해 성격이 삐뚤어질 가능성이 적음
- 지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이 또래 집단의 평균에 비해 우수함
- 독립심이 강함
-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리더십이 있음
- 자아개념과 지적 호기심이 강함
- 진취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음
- 경쟁할 형제가 없어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임
- 언어능력이 높음

■ 단점

- 지적 불연속성을 갖을 수 있음
- 사회성 혹은 인간적 발달이 느릴 수 있음
- 자기중심적이 되기 쉬움
- 지나친 애정과 보호로 능동적 역할 학습의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음
- 의존성이나 이기심이 있을 수 있음

(4) 외동이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 부모의 특성

- 사별 혹은 이혼에 의한 가정에서 외동이 많이 발생함
- 아버지의 부재로 행동 발달이 저해됨
-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자녀를 위로하고 격려함이 필요함

■ 외동이의 특성

- 여자 외동이의 경우 남자 외동이보다 성취도와 호기심이 높음
- 부모의 양육태도나 사회계층의 영향에 따라 사회성 발달의 차이가 있음

■ 외동이 양육 시 주의점

- 과잉보호하면 아이의 자존감이 낮아지기 때문에 과잉보호하지 않아야 함
- 과잉칭찬하면 버릇없는 아이로 자라게 되기 때문에 지나친 칭찬은 금물임
- 아이를 어른 취급하면 아이는 불안해하므로 친구처럼 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아이에게 완벽해지라는 압박감을 주지 않도록 함
-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확실한 태도와 지시로 보여주고 집안의 규율을 확실히 정함

■ 외동이가 외톨이가 되지 않으려면

- 외동아이에겐 필요이상의 관심과 간섭을 피해야 함
- 기본적인 자조행동은 스스로 하게 지켜보아야 함
- 과잉보호하면 스스로 의사 결정을 못하는 아이로 자라게 됨

참고 : 베이비타임즈(<http://www.babytimes.co.kr>)

(5) 외동이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 외동이가족을 위한 보육서비스

- 부모의 교육부담 경감과 협동하는 태도의 생성과 일관된 양육태도와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함

■ 외동이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 남아선호사상의 잔재가 아직도 존재하므로 프로그램 시 여아의 심리적인 불편함과 결혼 과정의 어려움 등을 반영해야 함

■ 외동이 가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

-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녀 양육 지원강화해야 함
- 가족 내 양육기능의 강화가 필요함
- 가족수당제 도입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이 필요함
- 가족상담사업 지원해야함
- 가족양육지원강화사업의 실효성을 위한 법률적인 지원 필요함

冊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안

- 2022년 10월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안'이 발의됨
- 고립되었거나 은둔하고 있는 자들의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함
- 은둔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스스로 혹은 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책무성을 명시함
- 아동·청소년·청년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외톨이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함

참고 : <https://www.kmaeil.com/news>

[학습하기 (2교시)]

2. 조손 가족의 이해, 조손 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1. 조손가족의 이해

1) 조손가족의 개념

- 조부모와 손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총칭함
- 법적 개념
 - 조부모와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 만으로 이루어진 가정
- 학자들의 견해
 - 자녀세대를 가족해체로 그들이 자신의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조부모가 손자녀와 한 가정에서 6개월이상 동거하면서 손자녀의 기본적인 의식주 및 생활 전반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
 - 성인자녀가 가구 내에 부재하거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로서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해 성인이 자녀의 기능적 부재를 경험하는 가족

2) 조손가족 형성원인

- 부모가 사망한 경우
- 부모는 생존하나 가족 기능의 와해로 인한 경우

3) 조손가족의 부정적 측면

- 조손가족이 처한 경제적 취약성, 열악한 건강,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감 등이 조부모의 심리적 안정 상태에 영향을 미침
- 손자녀가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돌봐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감, 손자녀의 더 좋은 교육과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조부모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음
- 원가족이 해체되는 시기와 새롭게 형성되는 조손가족 형성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울감이 더욱 가중되고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
- 아동의 단순한 심리·정서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대인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은 학교생활의 부적응적응을 초래할 수 있음

4) 조손가족의 긍정적 측면

- 손자녀가 자라나는 발달과 성장을 보면서 보람을 경험하고, 과거 자녀에게 주지 못했던 애정과 정성을 손자녀에게 제공하면서 심리적 보상을 경험함
- 부부갈등이 심각한 수준의 양부모 가족, 가족관계가 역기능적인 가족, 한부모 가족의 빈곤 청소년과 비교해볼 때, 오히려 조부모 가족으로의 편입 이후에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음
- 원가족의 해체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라면 시설보다는 가족 내에서의 양육과 보호가 권장되고 있음

참고 : <http://www.thepublicnews.co.kr>.

5) 조손가족의 복지욕구

- 손자녀 양육비 등 경제적 지원에 관한 욕구
- 조부모 지지집단, 손자녀 지지집단활동 등을 포함하는 심리적 욕구
- 가사지원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욕구
- 임대아파트분양혜택, 전세금지원 등을 포함하는 주거 안정욕구
- 가족관계증진 상담, 가정문제 상담 및 해결욕구

- 조부모와 손자녀를 위한 의료서비스 등 보건에 관한 욕구
- 법적·제도적 보완에 대한 욕구

2. 조손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1) 정책적 대안

- 조손가족을 지원하는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한부모가족지원제도 등)는 조손가족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조손가족은 일반 저소득 가구나 한부모가족과는 다른 상황임
 - 가족 구조상 경제적 자활 능력이 없음
 - 조부모와 손자녀의 심한 세대 차이 등
- 조부모의 대리양육자로서의 법적 권한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조손가족 지원프로그램과 서비스 시행을 위한 정책적 재정지원이 필요함

2) 실천적 대안

☒ 사례관리 측면

- 신뢰의 단계
 - 조손가족의 어려움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 가족이 제시하는 문제의 우선순위 정하기
 - 가족이 강점 파악하기
- 서비스단계
 - 가족과 함께 목적과 목표수립하기
 -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활용하기
 - 직면하게 될 어려움에 대한 대안 모색하기
- 서비스 제공 및 자원연결 단계
 - 계획한 자원을 조손 가족에게 연결하기

■ 점검 및 조정의 단계

-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 파악하기
- 가족과 서비스 제공자 간의 갈등 확인하기

■ 평가 및 재사정의 단계

- 서비스의 중개, 조정, 협상, 옹호 등의 활동의 유용성 평가하기

(1) 조기개입

- 실질적 도움이 필요하나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음
-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 및 민간사회복지기관이 사례발굴자가 되어야 함

(2) 조부모 양육부담 경감

- 조부모 양육부담스트레스 개입을 위한 프로그램 필요
- 손자녀와의 세대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
- 적절한 양육기술 습득을 위한 조부모 부모교육 필요
- 가사도우미 서비스, 조부모 여가 프로그램, 손자녀 일시보호 서비스 필요

(3) 조부모 심리상담 및 건강지원

- 조손가족 조부모는 생애발달주기의 발달과업에서 벗어난 과업을 수행하고 있음
- 손자녀와 갈등관계 등의 문제를 가진 고위험 조부모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프로그램 필요
- 손자녀와 조부모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위한 프로그램 필요
- 공중보건 의사 간호사의 정기적 방문을 통한 서비스 필요

(4) 아동역량강화

- 조부모와 살게 된 아동은 높은 공격성과 부적응 행동을 보일 수 있음
- 아동이 조부모와 함께 살게 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어야 함
- 부모와의 만남이나 연락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함
- 부모가 여전히 아동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함
- 부정적인 반응을 갖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도 알게 할 필요가 있음

- 자기효능감, 자존감, 내적통제, 학습시간 관리 등이 필요함

(5) 사회적지지 및 연결망 구축

- 아동의 친부모와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함
- 조부모가 인식한 사회적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가족 적응성과 응집성이 높음
- 다양한 사회적 지원 제공자와 자원유형확보가 중요함
- 조손가족과 일반가족 간의 교류, 결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 교류를 활발히 지원해야 함

3) 복지서비스(2021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서)

■ 임신·출산

- 임신·출산 진료비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등을 안내함

■ 양육·돌봄

-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 복지 급여 지원
-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및 가족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사례관리,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지원

■ 시설·주거

- 따뜻한 집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지원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교육·취업

-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 자녀 교육비 지원, 자립을 원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 금융·법률

- 한부모가족 양육비이행 지원, 무료법률구조 서비스와 저금리 미소금융, 소액보험 등에 관한 정보 등
-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 문화 활동 지원 등 내용과 함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절차 지원, 출생신고 전 복지 서비스 지원 등

- 여성가족부는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한부모·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왔습니다
- 한부모·조손가족 등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자원연계,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제공하는 '가족 역량강화 지원 사업'도 지원대상과 수행기관을 확대함

참고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com>)

제13주차 1차시	
강의주제	다문화 가족
<div> <div>학습 목표</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가족 전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다문화 가족 정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세계의 다문화 가족 정책을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다. </div>	
<div> <div>학습 내용</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 2. 다문화 가족 정책 3. 세계의 다문화 가족 정책 </div>	

[학습하기 (1교시)]

1.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

1) 다문화 가족의 개념

-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에 따라 인지·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2) 다문화 가족의 유형

-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국제결혼 가정
-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북한이탈 주민 등

체류형태	가족의 유형	가족구성원
장기체류 (국적 획득)	결혼이민자가족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부인
		한국인 부인과 외국인 남편
	북한이탈주민	북한/제3국에서 결혼 후 이주(북한 출신, 타국 출신)
		한국에서 결혼(한국인, 외국인)
임시체류	외국인 근로자 가족	다양한 이주 노동자 가족
	기타 유형의 가족	다국적 기업인 가족, 외국인 강사, 유학생 등 가족

3) 다문화 적응 관련 이론

(1) 인종의 용광로 또는 멜팅 팟 이론(영어: melting pot)

-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섞여 하나의 동질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 역사적으로는 주로 미국의 경우에 많이 사용
- 미국으로 수많은 이주민과 외국인들이 서로 모여 단일한 공통적 문화를 만들어 가던 현상
- 서로 다른 것들을 녹여 단일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개념은 1780 년대에 처음으로 쓰임
- 1908년 이스라엘 장월의 연극 '용광로'에서 그 이름을 따와서 본격적으로 '용광로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됨.
- 19세기에 아메리칸드림을 기대하며 미국으로 몰려와서 모여있는 상태를 설명하기에 유용함

(2) 샐러드볼 이론

- 서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문화 정체성을 유지
- 사회 내에서 조화로운 통합을 이루어나가게 하는 이론
- 서로의 특성을 지켜나가며 어우러지는 조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샐러드와 비슷
- 20세기 후반에 들어 세계화가 촉진되며 인종의 용광로(melting pot)에 대한 대안
- 문화의 정체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개념
- 미국 뉴욕의 예
-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문화를 지킴
- 큰 틀 내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음

(3) 문화적응이론

① J. W. Berry의 문화적응 상태

- 자신의 문화적 가치와 특성을 유지할 것인가?
- 주류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② J. W. Berry의 문화적응 4가지 유형

- 동화
- 이주민 고유 모국의 문화와 정체성 포기
- 새로이 정착한 주류사회와 상호관계 유지
- 고유 정체성 상실 후 주류문화의 일부가 됨
- 급격한 문화 변화로 혼란을 겪을 수 있음

■ 분리

- 주류문화와의 상호작용을 거부함
- 자신들의 문화만을 고집함
-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함

예) 미국의 코리아타운, 한국의 프랑스 서래마을 등

■ 주변화

- 주변화는 이주민의 고유한 정체성도 부정하고 주류사회와의 상호작용도 거부하며 두 문화의 주변에서 머물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 이주민의 삶 중 가장 문제 시 되는 경우임

■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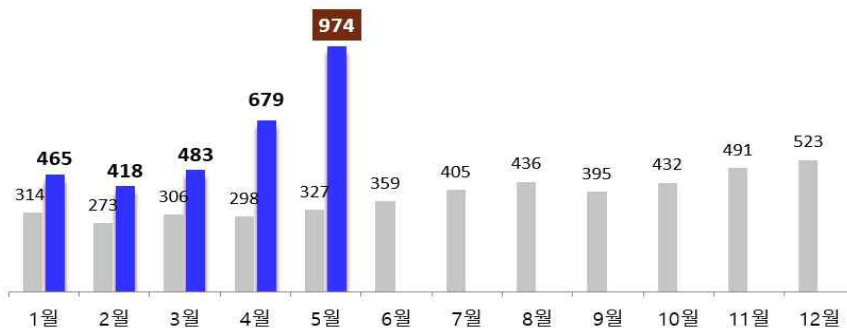
- 이주민들이 주류사회에 적극 참여함
- 이주민 자신의 문화 정체성도 고수함
- 균형잡힌 시각에서 고유문화와 주류문화의 장점 통합
- 이주민의 삶 중 가장 이상적인 형태임

5) 출입국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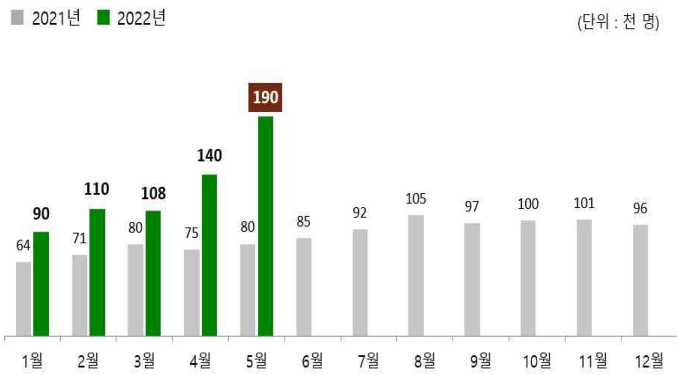
(1) 출입국자 증감 추이

■ 2021년 ■ 2022년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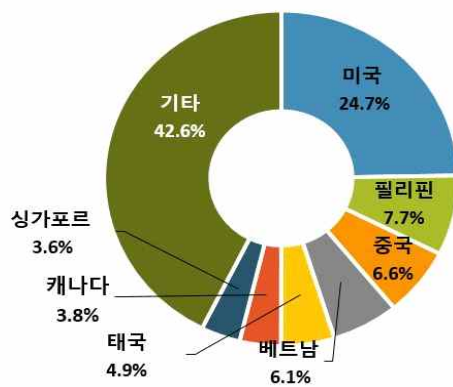


(2) 외국인 입국자 증감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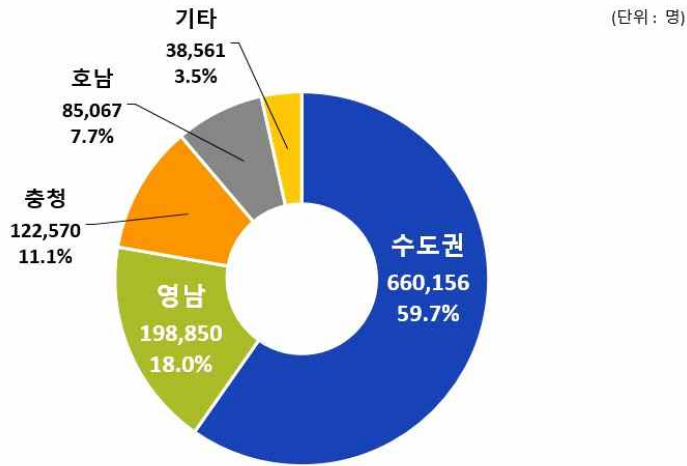


(3) 외국인 입국자 국적

2022년 5월 외국인입국자 구성현황



(4) 등록외국인 거주지역별 현황



참고 :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2022년 5월호

4) 다문화 가족의 실태

(1) 다문화 가족 일반적 특성

- 다문화가족 1만 5,578가구를 대상으로 2021년 실시 결과
- 다문화가구는 전체 34만 6,017가구임
- 결혼이민자 가구가 82.4%, 기타귀화자 가구가 17.6%임
- 거주지역은 수도권에 56.1%, 동 지역 거주자가 읍면 지역 거주자보다 3배 이상 많음
- 가족 구성은 부부와 자녀 가구가 35.5%, 부부 가구 30.0%, 한부모 가구 10.9%, 1인 가구 8.3% 순임
- 부부 가구의 비중이 2018년 17.0%에 비해서 13%p 증가하였음
- 무자녀 가구가 42%로 2018년보다 5.3%p 증가함
- 가구소득은 300만 원 이상이 50.8%로 2018년에 비해서 9.0%p 증가함
- 코로나19로 51.5%가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함

(2) 결혼 이민자·기타귀화자의 일반적 특성

- 1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결혼 이민자 등이 큰 폭으로 증가
-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음
- 부부관계의 만족도와 대화시간은 증가하고
- 배우자와의 문화적 차이 및 갈등 경험은 감소
- 부부관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3) 혼인상태

- 유배우가 84.8%, 이혼과 별거가 8.6%, 사별이 3.2%임
- 이혼·별거 사유로는 성격 차이가 50.7%로 가장 많음
- 이혼·별거 후에 자녀 양육은 결혼 이민자가 93.3%가 책임지고 있음
- 부부 간 갈등은 15.5%p 감소한 46.3%로 나타남
- 갈등 사유로는 성격 차이가 가장 큰 56.6%
- 양육 문제가 26.7%, 경제적 문제도 24.7% 순으로 나타남
- 부부 간의 문화적 차이 경험은 3.5%p 감소한 52.4%로 나타남
- 식습관이나 의사소통 방식에서 주로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고 있음

(4) 자녀양육 측면

- 만 5세 이하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감소한 반면, 만 6세 이상은 증가하였음
- 만 5세 이하의 한국어 지도가 만 6세 이상은 학습지도가 가장 힘들다고 나타남

(5) 경제활동 측면

- 결혼 이민자와 기타귀화자의 고용률은 2018년 대비 5.6%p 감소한 60.8%로 나타남
- 단순 노무 종사자는 32.4%로 4.5%p 증가함
- 상용근로자는 2018년보다 5.4%p 증가한 47.7%로 양적인 증가는 다소 감소했으나 질적인 부분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6) 사회생활 측면

- 한국생활에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은 8%p 증가한 37.9%로 나타남
- 주로 언어나 경제문제, 외로움 등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 차별받은 경험은 16.3%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결혼 이민자나 기타귀화자의 한국 생활 적응도는 높아지고 있음

(7) 지원서비스 측면

- 다문화가족 서비스 이용경험은 입국 전 교육이 36.2% 이용함
- 한국사회 적응 교육이 30.4%로 주로 초기적응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 일자리 소개가 초기적응지원보다 더 높게 나타남

참고: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www.korea.kr.

5) 다문화가족의 문제점

(1) 문화부적응

- 한국문화에 동화, 흡수를 강요하는 경향이 있음
- 여성 결혼 이민자의 경우 심각하게 나타남
- 한국어학습, 한국음식 조리법의 학습, 한국의 역사와 문화 이해 교육 등
- 성차별에 대한 역할 기대
- 한국의 며느리, 한국의 어머니로의 삶이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짐

(2) 이혼문제

- 2020년 중반 이후 이혼율 증가추세임
- 체류기간 10년 이상으로 길어질수록 '성격차이'가 이혼의 이유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3) 사회적 편견 및 차별

- 순혈주의와 단일민족의 우월주의에서 기인함
- 결혼 중개업자들의 불법행위
- 국제결혼을 악용하여 한국에 이주하려는 외국 여성의 비도덕성
- 후진국 국민으로 낮게 평가함
- 저 개발 국가에 대한 문화적 편견이 심함

[학습하기 (2교시)]

2. 다문화 가족 정책

1) 한국 다문화가족 정책의 형성과정

- 프랑스, 독일, 미국 등에서는 50-150년 간 다문화 유입
- 우리나라 10-15 년으로 압축적 변화가 있음
- 결혼이민자를 정책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음
- 2006년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 대책마련이 시초임
- 2006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개소가 시 · 군 · 구에 설치
- 2008년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정
- 2009년 국무총리실에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 2010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 수립
- 2011년 기본계획 심의 및 확정되어 추진됨

2)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1) 비전 : 비전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

(2) 5대 정책목표

- 개방 :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
- 통합 :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 안전 :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 인권 :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 협력 :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3)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 우수 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취업이민자 유치 및 활용
 - 관광객 및 투자자 등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 유입체계 고도화 및 체류·국적제도 개선
-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 이민배경 자격 역량강화
 -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화
 -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체계구축
 -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선진화
-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 이민자 권리보호 체계 강화
 -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 증진
 -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 동포와 함께 공존·발전하는 환경 조성
 - 국제 사회가 공감하는 선진 난민정책 추진
-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 이민관련 국제 협력 증진
 -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력 강화
 - 이민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4) 지난 10년 간 정책과의 차별성

- 상생과 화합의 외국인정책'을 통해 정책의 국민 수용성 제고 및 지속 발전 가능한 체계 구축
- 우수하고 발전가능성 있는 외국인을 유입하고, 외국인이 자립·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
- 이민자 유입의 경제·고용·사회·문화적 영향을 분석하고 유입 원칙과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 등 종합적 이민자 유입체계 고도화
- 사회통합 체계와 체류, 영주, 국적의 연계를 강화하여 재한외국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질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유도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상응하는 국적·체류제도 개선
- 귀화자 병역의무 부여 여부 및 현실적 이행방안 등 장기 검토

지난 10년간 정책		제3차 기본계획	
이민의 양적 확대 중심의 개방적 이민 허용	⇒	이민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고도화를 병행한 적극적 이민정책	
사회통합 체계 마련 및 참여 증진	⇒	사회통합 체계와 체류·영주·국적 연계 강화	

(5) 재원투자 규모

- 2018~2022년 중 총 투자규모는 약 1조 1,413억 원으로 추계
-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분야 8,113억 원 (71.1%)
-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분야 1,117억 원(9.8%)
-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분야 1,032억 원(9.0%)
-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분야 636억 원(5.6%)
-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분야 514억 원(4.5%)

<연도별 투자 계획 >

(단위 : 억 원)

구분 \ 연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11,413.14	2,335.54	2,317.34	2,261.01	2,285.64	1,031.94
국비	일반회계	6,631.07	1,482.06	1,395.48	1,281.77	1,290.09	1,181.67
	특별회계	89.03	31.00	10.00	28.03	10.00	10.00
	기금	4,131.47	698.52	802.48	841.83	876.14	912.50
	소계	10,851.57	2,211.58	2,207.96	2,151.63	2,176.23	922.50
지방비		561.57	123.96	109.38	109.38	109.41	109.44
기타 (민자 등)		-	-	-	-	-	-
추진분야별	개방	8,113.07	1645.77	1584.57	1590.31	1629.11	1663.31
	통합	1,117.15	196.33	255.37	214.75	221.32	229.39
	안전	1,032.80	177.50	325.20	277.10	111.00	142.00
	인권	636.11	113.88	121.25	129.70	130.31	140.97
	협력	514.00	202.06	30.95	49.15	193.90	37.94

참고 : 법무부.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8~2022)

(6) 제4차 다문화정책 추진계획 수립예정

- 여성가족부는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4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2023~2028)'을 수립할 예정임
-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을 통해 가정 내 효과적인 이중언어 소통방법 등을 교육하며 이중언어 인재 데이터베이스도 운영
-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차별에 노출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발생 때 조치과정에서 통·번역사 등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고 정부 주요 정책의 차별과 편견 요소를 점검(모니터링)하는 다문화영향평가도 추진함

참고 : <http://asiantimes.kr/>. 2323. 05.

3)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

(1) 사회통합프로그램

- 2009년 4월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입
- 초기참여자는 결혼이민자가 대부분이었음
- 2019년 근로자와 유학생 등 다양해짐
- 2018년 인터넷을 통한 교육 가능해짐

(2)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 2015년부터 시행함
- 일반적인 사회적응, 진로, 부부교육 인권교육 등
- 한국어 포함 총 13개 언어로 강의 제공
- 프로그램 이수 후 결혼이민자가 외국인 등록시 체류기간 2년 부여
-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 시 교육이수시간 2시간 공제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지원사업
- 결혼 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 다문화 가족지원 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번역서비스 등

4)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대책

(1) 가족 중심 서비스로 개편 및 확장

- 여성 이민자 중심에서 다문화 가족 중심으로 변화 요구됨
- 배우자 및 확대가족을 포괄한 접근 요구됨
- 남성 배우자를 위한 자조모임
- 남성 배우자를 위한 결혼 준비 교육 등

(2) 문화적 역량을 갖춘 전문 사례관리의 강화

- 다문화가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시급함
- 실무자의 역량강화 및 사례관리자의 훈련 및 양성

(3) 다문화 이해교육의 실시 및 강화

- 한국인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 필요
- 한국인과 다문화와의 문화적 갈등해소
- 배척이 아닌 배려와 격려 필요
- 저출산 고령화 시대 문제 해결의 대안임을 인식

3. 세계의 다문화 가족 정책

1) 미국

- 연방정부

- 연방정부는 입법화를 통한 다문화교육정책의 법적근거 마련
- 기금 조성으로 학교와 유관기관의 재정적 지원

- 주정부 및 위원회

- 다문화교육정책의 실행
- 주변 실정에 맞는 다문화교육 및 프로그램 실행

- 초기 인종중심 교육에서 문화적 다양성 중심의 교육으로 변화함

- 1954년 브라운 판결 이후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시작됨

2) 호주

- 다양한 배경과 크기의 민족적·문화적 집단들이 상호 상이한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척하기보다는 수용하고 지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

- 포용적 다문화 정책을 적극 펼침

- 친다문화적 환경 조성에 주력함

- 기존의 공동체와 유입되는 이민집단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를 위해 노력함

- 모든 호주 국적(시민권) 취득자를 대상으로 호주와 호주 국민들에 대한 충성심과 민주주의 신념을 공유

-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며, 법을 수호하고 준수할 것을 맹세하고 확약하게 함으로써 공동체의 지속적 안전을 도모하고 있음

참고 : 대한민국시도자치협의회홈페이지

3) 캐나다

- 1971년 최초로 '다문화주의'를 국가 정책으로 채택

- 1986년에는 평등 고용법, 1988년에는 다문화주의법을 발효

- 2015년 캐나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5%가 '이민자 역시 여기서 태어난 사람만큼 좋은 캐나다 시민이 되는 것 같다.'고 답함

- 2017년 캐나다연구학회는 '캐나다 국민들은 점점 더 다양성에 대하여 편안함을 느낀다.'고 보고했을 만큼, 다문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국가로 잘 알려짐

-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다문화 교육

- 학생들의 성취와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불공평한 결과를 낳는 제도적 문제점들과 차별적이고 비교육적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만듦

- 4가지의 핵심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두고 있음

- ① 학교와 교실에서의 실천
- ② 리더십, 공공경영, 인재 양성의 실천
- ③ 데이터 수집, 통합 및 보고
- ④ 조직적 문화 변화

4) 프랑스

- 프랑스 사회는 한국보다도 훨씬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통합 모델을 채택하고 있음
- 이민자의 사회보장권, 주거권을 보장하고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인 통합을 도모함
- 프랑스의 다문화정책 비판적 요인
- 프랑스의 정책은 이민자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두고 있음
- 프랑스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것이고, 지나치게 이상적이라고 여겨짐
- 주 이민자들은 이슬람으로 피부색갈, 종교, 문화 등에 있어서 완전히 '프랑스인'이 되기 어려우므로 자신들의 문화와 개성을 더 존중해줄 것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거세짐
- 프랑스의 사회적 갈등이 프랑스의 다문화 정책이 아니라 빈민 지역의 청년실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에서 온다고 봄

5) 일본

- 지방정부가 다문화정책의 주체임
-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다문화공생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 가이드라인 정도만 제공함
-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곳이나 혁신적인 자치단체의 경우 외국인의 요구에 따라 국제교류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며 중앙정부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제안하기도 함
- 다문화가족 관련 비영리단체의 활동에 지원하기도 함
- 일본어 교육지원 활동에 적극지원하기도 함
- 비영리단체, 혹은 지역 주민의 지원은 다문화사회에 한 발 더 다가가는데 도움이 됨

참고 : <http://asiantimes.kr>. 2020.

제13주차 2차시	
강의주제	치매노인 가족
<div>학습 목표</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 노인 가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치매 노인 가족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 치매 노인 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
<div>학습 내용</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치매 노인 가족의 이해 2. 치매 노인 가족의 실태와 문제점 3. 치매 노인 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과 대책

[학습하기 (1교시)]

1. 치매 노인 가족의 이해

1) 치매의 정의

- 후천적으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기억, 언어, 판단력 등의 여러 영역의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는 상태임
- 치매는 어떤 하나의 질병 명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에서 여러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는 증상들의 묶음인 증후군임

(1) 정상 노인과 치매 노인의 기억력 차이

- 정상 노인의 기억력 저하
 - 뇌의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원인이다.
 - 경험한 것의 일부를 잊어버린다.
 - 잊어버리는 것이 많아져도 진행되지 않는다.
 - 잊어버린 사실을 스스로 안다.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
- 치매노인의 기억장애
 - 뇌의 질병이나 손상이 원인이다.
 - 경험한 것의 전체를 잊어버린다.
 - 기억장애가 점차 심해지며 판단력도 저하된다.
 - 잊어버린 사실 자체를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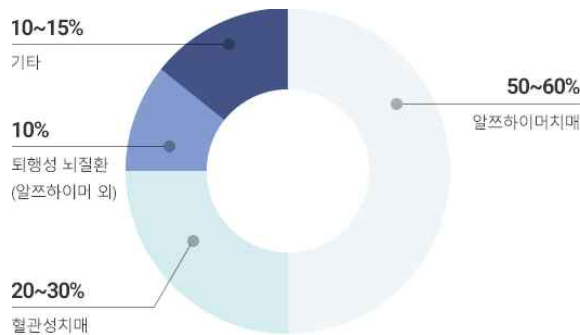
-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

2) 치매의 원인

- 치매는 뇌질환으로 인한 하나의 증후군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에 의해 생길 수 있음
-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질환은 70가지 이상으로 알려져 있음

(1) 치매의 원인에 따른 질병

(치매 원인 질환)



■ 대표질환

- 퇴행성 뇌질환 : 알츠하이머 치매, 픽병, 루이체병, 파킨슨병, 진행성핵상마비 등
- 뇌혈관질환 : 뇌경색, 뇌출혈 등
- 결핍성질환 : 베르니케뇌증, 비타민 B12 결핍증 등
- 대사성 질환 : 저산소증, 갑상선기능저하, 간성뇌병증, 요독증, 윌슨병 등
- 중독성 질환 : 알코올중독, 일산화탄소중독, 약물중독, 중금속중독 등
- 감염성 질환 : 신경매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 수두증 : 정상압수두증 등
- 뇌종양 : 뇌수막종 등
- 뇌외상 : 뇌좌상 등

3) 치매의 구분

(1) 가역성 치매

- 완치가 가능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 치매
- 일반적으로 전체 치매의 5-10%를 차지함
-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뇌에 구조적 변성이 발생함
- 대표적인 가역성 치매의 종류

- 우울증에 의한 가성치매, 정상압 뇌수두증
- 내분비질환, 결핍성 질환, 알코올 중독 등

참고 : 노인성치매임상연구센터 홈페이지

(2) 비가역적 치매

-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회복이 어렵다고 인정
- 비가역적 치매의 원인 질환은 알츠하이머병, 루이체 치매, 파킨슨병, 전두측두엽 치매, 헌팅톤병 등

4) 치매의 유형분류

(1) 알츠하이머형 치매

- 퇴행성치매 중 가장 문제가 되며 가장 흔한 형태로 전체 치매의 절반 정도 차지함
- 1960년 독일 의사인 알로이즈 알츠하이머가 최초로 명명한 노인의 정신질환
-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던 뇌세포들이 특정한 원인 없이 서서히 죽어감
- 개인의 인지기능은 점진적으로 감퇴함
- 80대에 그 발생빈도가 정점을 이루고 발병 5년 이내에 그 80%가 사망함

(2) 뇌혈관성치매

- 뇌혈관성치매는 뇌졸중이 반복되어 일어남으로써 뇌의 여러 부위에 뇌경색이 생겨 인지기능의 장애를 일으키는 것
- 뇌혈관 중 큰 혈관이 막히게 되면 운동장애나 언어장애가 바로 나타나고 치매가 바로 진행됨
- 작은 혈관이 막히게 되는 경우 처음에는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지만 누적되면 다발성 경색 치매가 됨
- 갑자기 발병하고 치매가 나타나기 전에 한 번 이상 뇌졸중을 경험함

(3) 파킨슨병

- 1817년 파킨슨에 의해 명명됨
- 도파민 결핍상태로 운동신경망이 원활히 작동하지 못함
- 뇌의 기저핵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저하되어 생김
- 떨림, 경직, 서동의 특징
-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파킨슨병의 발현율이 증가함
- 기억장애보다 신체 떨림이나 손 . 발 . 관절의 마비 등 여러 가지 운동장애가 먼저 나타남

5) 치매의 증상

- 기억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영향을 줌
- 계획을 세우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추상적인 사고 능력이 떨어짐
- 익숙한 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생김
- 시간과 장소를 혼동함
- 눈으로 보고 공간적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짐
- 말하거나 글을 쓰는 것이 어려워짐
- 물건을 잘못 간수함
- 자발성이 감소하고 사회활동이 줄어들음
- 기분이나 행동의 변화가 있음

6) 치매의 진행

(1) 초기(발병 후 1-3년)

① 특징

- 최근 기억의 감퇴가 시작됨
- 사회생활이나 직업능력이 다소 상실되더라도 어느 정도 독립적인 생활 가능함
- 개인위생을 유지하며, 사회적 판단력은 유지됨
- 점차 진행되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기 시작함
- 주변 사람들의 다소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됨

② 증상

- 오래 전에 경험했던 일은 잘 기억하나, 조금 전에 했던 일 또는 생각을 자주 잊음
- 음식을 조리하다가 불 끄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빈번해짐
- 돈이나 열쇠 등 중요한 물건을 보관한 장소를 잊어버림
- 물건을 사러 갔다가 어떤 물건을 사야 할 지 잊어버려 되돌아오는 경우 발생함
- 평소 잘 알던 사람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음
- 일반적인 대화에서 정확한 낱말을 구사가 어려움
- 남을 의심하는 말을 하며 성격이 변한 것 같음

(2) 중기(발병 후 2-10년)

① 특징

- 초기단계에서 보였던 기억력 감퇴, 언어능력 등의 증상은 더욱 악화됨
- 대체적으로 사회적 판단에 장애를 겪게 됨
-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주변사람들이 도와주어야 함

② 증상

- 돈 계산이 서툴러짐
- 전화, TV 등 가전제품을 조작하지 못함
- 음식 장만이나 집안 청소 등을 하지 않으려 함
- 외출 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함
- 날짜, 시간, 계절 등을 파악 못함
- 지인을 몰라봄
- 정확한 낱말 구사가 어려움
- 집안을 배회하며 반복적인 행동을 계속함

(3) 말기(발병 후 8-12년)

① 특징

- 모든 지적 능력이 심하게 손상됨
- 일상생활의 능력이 심하게 감퇴함
- 팔 다리 등 신체에 장애가 없는데도 걷지 못하게 됨
- 뇌가 더 이상 신체에게 무엇을 지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됨
-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거의 전적으로 주변의 도움에 의존함

② 증상

-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됨
- 집안 식구들도 알아보지 못함
- 자신의 이름, 고향, 나이도 기억하지 못함
- 혼자서 웅얼거릴 뿐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 없음
- 한가지 단어만 계속 반복함
- 중국에는 말을 하지 않음
- 얼굴 표정이 사라지고 보행장애가 심해짐
- 모든 기능을 잃게 되면서 누워서 지내게 됨

참고 : 대한노인정신의학회홈페이지

7) 치매노인의 특성

■ 인지장애증상

- 기억, 언어, 지남력, 인격 등의 장애가 있음

■ 신경정신과적 증상

- 기운 없음, 생활 의욕의 약화, 외부 일의 무관심, 화를 잘냄, 환각증상 등

■ 지남력 장애

- 시공간 파악 능력 감퇴, 야간 배회 등

8)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 환자의 증상으로 인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 흔히 처하게 됨
- 환자를 이해하고 돌보는 과정에서 가족간의 갈등이 초래되기도 함
-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심리적 단계
 - 혼란
 - 거절
 - 단념
 - 수용
-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은 신체적인 부담뿐 아니라 정신적인 부담감이 큰 것이 특징임

참고 : 서울아산병원홈페이지

[학습하기 (2교시)]

2. 치매 노인 가족의 실태와 문제점

1) 치매노인가족의 실태

(1) 노인치매인구 및 관리비용

- 2021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 857만 7,830명
- 총 노인인구 중 추정 치매환자수는 88만 6,173명임
- 치매유병률은 10.33%에 달함
- 치매관리비용은 총 18조 7,198억원으로 추계됨
- 비용을 1인당으로 환산하면 약 2,124만원임

(2) 노인치매환자 유병 현황

- 치매노인의 성별 구성비율은 여성 61.7%, 남성 38.3%로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
- 연령별 구성비율을 보면, ▲60~64세 2.7% ▲65~69세 4.4% ▲70~74세 8.8% ▲75~79세 20.72% ▲80~84세 26.73% ▲85세 이상 36.66%순
- 80세 이상 치매노인은 전체 치매환자의 63%에 달함

(3) 노인치매환자의 중증도별 구성은

▲최경도 17.4% ▲경도 41.4% ▲중등도 25.7% ▲중증 15.5%임

(4) 노인치매 유형별

- 알츠하이머 치매가 76.04%로 대부분을 차지함
- 혈관성 치매는 8.57%, 기타 치매는 15.37%임

(5) 지역별로 노인치매환자 유병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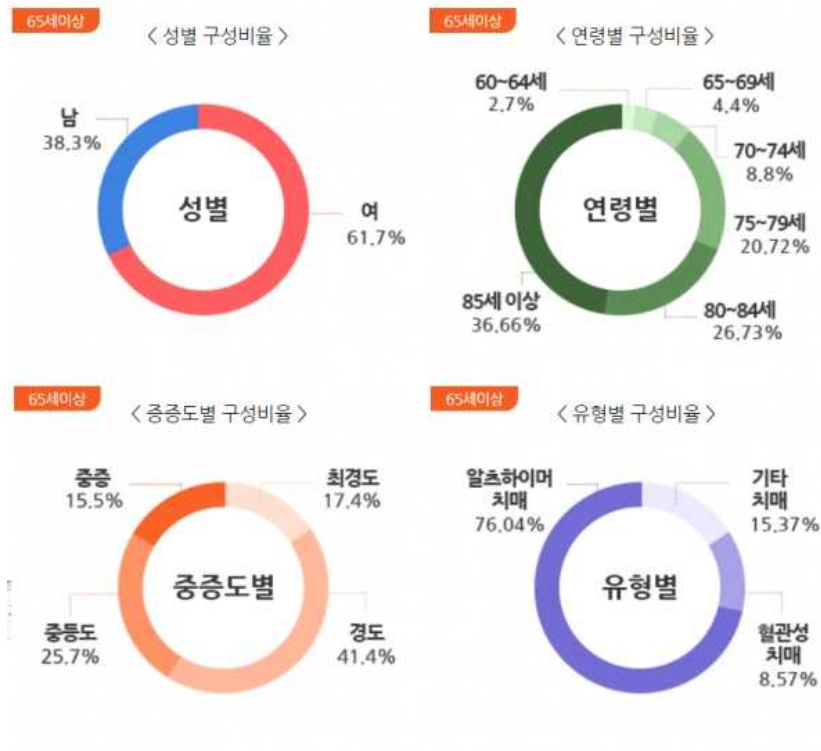
■ 가장 높은 광역단체

- 전라남도로 12.06%, 충청남도 11.83%, 전라북도 11.65%, 경상북도 11.27%, 제주도 11.26% 순

■ 유병률이 가장 낮은 곳

- 울산광역시로 8.5%, 부산광역시 9.27%, 서울특별시 9.58%, 대구광역시 9.82%, 인천광역시 9.85% 순

(치매 유병 현황)



(중앙치매센터전국 치매환자 유병현황자료, 2021)

2) 치매노인가족의 문제점

(1) 경제적 문제

- 환자돌봄비용 부담
- 신체적 문제 및 합병증 문제
- 많은 시간 투자해야 하는 문제
- 부양가족의 심리적 압박감

(2) 정신·신체적 문제

- 우울감에서 오는 정신적 부담
-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음에 대한 불안감
- 편하게 모실 수 없다는 죄책감
- 환자의 지나친 행동에 대한 분노
- 수발로 인한 만성피로
- 수면부족
- 수발 시의 시달림
- 사회활동 상실 등

(3) 정서·심리적 문제

- 발병초기
- 정서적 혼란기
- 나이탓으로 무심히 지내는 경우 많음
- 노인의 인격 상실에 대한 실망감
- 정서적 슬픔을 경험함
- 치매경증기
- 치매증세를 거부함
- 집안의 혼란스러움 경험함
- 친척이나 가족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고립감
- 환자를 방치하는 경우 발생함

(4) 갈등문제

- 치매 노인의 신체 및 정신장애 정도의 판정
- 치매 노인을 대하는 태도나 상호작용
- 부양자의 태도나 부양에 대한 가족 구성원 간 의견차이

참고 : 디멘시아뉴스. 2022. 03

(치매노인부양가족 차원의 영역별 부담)

영역	부양가족차원
생활의 제약	- 간호로 인한 부정적인 일상 생활의 제약
정신문제	- 좌절감, 증오심 형성, 불안감 증가
경제문제	-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 - 생계활동 지장, 건강 보험비 상승

가치규범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치매노인)에 대한 존경심 상실 - 학대 폭력 가능성 증대 - 노후에 대한 두려움 증가 - 가족 간의 갈등 증가
보건의료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질환 발생 가능 - 과로에 따른 질병 위험

참고 : 최정숙 외. 가족복지론. 2020. 재인용

3. 치매 노인 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과 대책

- 보건복지부의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총 3회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 1차 치매 종합관리대책
 -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인프라구축
 - 치매환자 부양부담 경감과 부정적 인식 개선 등
- 2012년 치매관리법
 - 치매의 예방
 - 치매환자의 진료, 요양,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 수립
- 2015년 제 3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1) 치매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

(1) 치매국가책임제

- 증가될 치매 환자의 고통과 그 가족의 부양 경감
-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 예방, 사례관리 등 종합적인 치매 지원체계 구축
-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안심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함

(2) 치매안심국가책임제도의 주요 내용

① 맞춤형 사례관리

- 전국 252개소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 지원
- 치매노인등록시스템으로 전국에서 연속적으로 관리

②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 장기요양등급체계 개선, 경증치매환자도 요양서비스 대상에 포함
- 치매 안심형 시설 확충
- 주야간 보호시설과 치매안심형 입소시설 확충

③ 치매안심요양병원확충

- 이상행동이 심한 중증환자, 치매안심요양병원에서 단기 집중치료
- 공립요양병원에서 시범 실시 후 확대

④ 의료비 부담 완화

-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 10% 인하
- 치매진단 정밀검사비용 건강보험적용
- 장기요양본인부담금 경감 혜택 대상의 단계적 확대

⑤ 치매 예방 및 친화적 환경 조성

- 조기 진단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연계
- 치매예방 프로그램 제공
- 치매 노인 공공후견인 제도
- 치매 가족 휴가제 및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사업

⑥ 치매 연구개발과 행정체계 정비

- 치매에 대한 체계적 연구 계획 수립
- 치매해결을 위한 중장기 연구 지원
- 보건복지부 내 치매 정책 전담부서 설치

(2) 치매관리체계

① 치매안심센터서비스

- 치매 예방,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 치매 통합서비스'로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치매조기검진사업, 상담 및 등록관리사업, 치매가족지원사업,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쉼터운영,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치매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등을 진행

② 치매의료서비스

- 공립요양병원, 요양병원의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으로 진료수준 향상
- 양의, 한의, 재활서비스와 복지프로그램 제공
- 장기요양 인정등급 시 요양병원과 방문요양서비스 및 주야간보호서비스 가능

③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 치매노인이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인간으로서의 권리 및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 치매진단을 받은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 ※ 단, 위 조건을 미충족한 자라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 장이 판단한 경우 지원 가능

참고 : 대한치매학회홈페이지

2) 노인치매가족에 대한 대책

(1) 치매노인 가족의 정서강화의 필요성

- 문제 행동에 대한 소극적 대처는 부양자의 부담을 누적시킴
- 회피, 도피는 부양자의 소진을 야기시킴
- 문제행동 대처 기술 등의 프로그램은 부양부담에 효과가 있음
- 부양스트레스,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킬 프로그램 필요

(2) 치매노인 가족의 소진 해결 방안

- 가족간 의사 소통
 - 가족간 정기적으로 모임을 통한 경험담 공유
 - 경험담을 나누고 환자의 상태에 대하여 공유
 - 소통의 부재 에서 오는 견해 차이, 오해, 고립감을 해소하는데 도움됨
- 가족의 적절한 역할 분담
 - 환자 돌봄, 경제활동, 가사활동, 자녀 양육 등 다양한 역할 분담
 - 역할이 편중되어 있을 경우 이로 인한 갈등이 생기기 쉬움
- 전문가의 도움
 - 치매의 적절한 약물치료
 - 치매의 행동심리증상과 환자와 가족의 심리
 - 정서적 어려움에 대하여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음
- 요양보험제도와 지역사회서비스의 이용
 - 치매노인과 가족에 대해 사회적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의사의 소견이 있고 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상에 따른 서비스
 -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한 서비스

■ 가족 교육 프로그램 참여

- 치매 대처능력 키움

- 병원이나 지역 보건소, 치매지원센터, 치매가족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참고 : 서울아산병원홈페이지

제14주차 1차시	
강의주제	중독 가족
<div>학습 목표</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독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알코올중독의 원인 및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서비스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 도박중독의 개념을 이해하고 특성 및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책을 제시할 수 있다. ● 인터넷중독 개념과 실태를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div>학습 내용</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독의 개념 및 특성 2. 알코올 중독의 원인 및 실태와 문제점 및 서비스 현황 3. 도박 중독의 개념 및 특성과 원인 및 예방 4. 인터넷 중독의 개념과 실태 및 대처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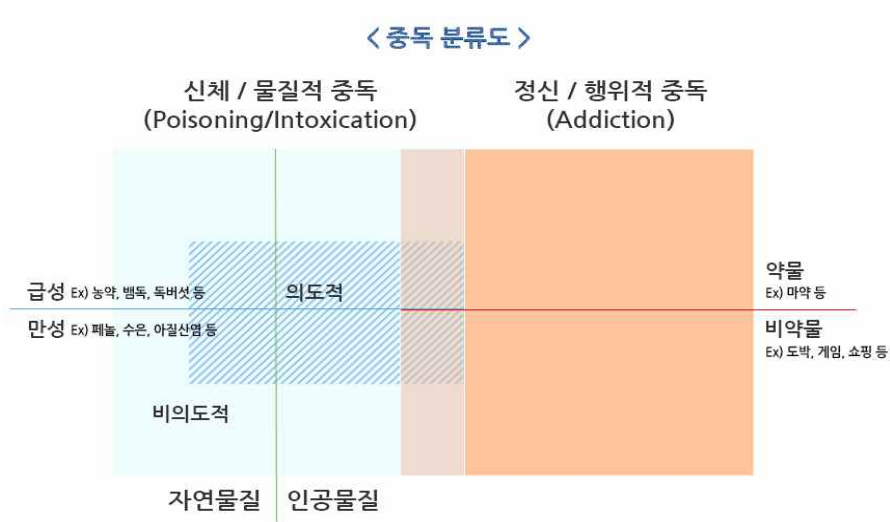
[학습하기 (1교시)]

1. 중독의 개념 및 특성

1) 중독의 개념

- 중독은 정신의학적 용어가 아니라 일상적인 용어임
- 중독이란 독성물질에 의한 신체적·물질적 중독과 정신적·행위적(의존적) 중독을 동시에 일컫는 말
- * (독성물질) 인체에 유입되어 건강상 장애를 초래하는 모든 자연 및 화학물질
- 신체적·물질적 중독
 - 생물체의 기능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독성물질에 생물체가 노출(흡입, 경구섭취, 피부접촉 등) 될 경우 발생하는 신체 위해성 문제(농약, 독버섯, 페놀 등)
 - (급성/만성 중독) 독성물질이 신체에 일으키는 급성 반응으로 인한 상태인 급성 중독과 독성물질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발생하는 상태인 만성중독으로 구분
 - (의도/비의도 중독) 의도성 여부에 따라 의도적 중독(자해·자살)과 비의도적 중독(사고 등)으로 구분
- 정신적·행위적 중독 : 일종의 습관성 중독으로, 심리적 의존이 있어 계속 물질, 행위, 약물 등을 갈망하고, 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게 되는 상태(약물, 도박 알코올, 흡연, 인터넷, 쇼핑 등)

(중독분류도)



2) 중독의 특성

(1) 중독 용어의 정리

- 금단 증상
 - 신체적으로 의존하던 약물의 사용을 중지할 때 나타나는 징후 및 증상
- 남용
 - 치료 목적과 무관하게 쾌감, 안락감, 다행감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 내성
 - 같은 양의 약물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후 효과가 감소되거나 혹은 처음 사용한 양으로 느꼈던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양이 필요한 것
- 디자인어약물
 - 불법 약물과 화학적으로 유사하게 제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화학구조를 수정하여 합법적 구매가 가능할 수도 있음
 - 약물은 성분, 주작용, 독성 등에 대하여 거의 알려진 바 없어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약물임
- 물질
 - 알코올, 카페인, 대마, 환각제, 흡입제, 아편계, 진정제, 수면제/항불안제, 자극제 (메트암페타민, 코카인 등), 담배 및 기타 신종마약류 등을 포함
- 보상 회로
 - 음식, 음료, 섹스, 양육과 같이 삶을 유지하는 즐거운 활동은 보상(쾌락 포함)효과와 연결되어 반복하도록 동기를 부여

■ 심리적의존성

- 일정기간 동안 약물(마약류)을 사용한 후에 발생하는 감정 상태의 변화로 계속해서 약물을 사용해야만 편안함을 느끼며 약물사용에 대한 갈망 혹은 강한 욕구를 경험함.

■ 약물

- 의학적 :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물질 혹은 신체적, 정신적 안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물질.

- 약리학적 : 신체 조직이나 유기체의 생화학적 혹은 생리적 과정을 바꾸는 화학적 매체

- 통념적 : 비의료적인 목적(오락, 환각, 행복감 등)으로 사용되는 물질

- 오용 : 처방받은 이유와 다른 목적으로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본인에게 처방되지 않은 의약품을 복용하는 것. 또한 처방받은 지시와 용량대로 복용하지 않는 것도 포함

■ 육체적의존성

- 약물의 반복적 사용으로 나타나는 육체의 변화로 이러한 금단증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여함

- 증상은 가벼운 불쾌감에서 사망까지 다양하며 복용한 약물의 종류, 복용기간, 복용량, 성별, 나이 및 개인차 등에 따라 다름

(2) 중독위험요인

■ 어떤 한 가지 요인만으로 약물에 중독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예측하기는 어려움

① 가정에서의 문제

■ 가정이 행복하지 않거나, 성장기 때 행복하지 않았으면 약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했거나 가정 내 싸움이 잦았거나 부모가 약물문제가 있다면 중독 될 위험이 증가함

② 학교, 직장 및 친구 사귀는 문제

■ 학교나 직장에서의 실패나 대인관계의 문제는 삶을 힘들게 만들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를 잊기 위해 약물을 사용할 수 있음

③ 약물(마약류)을 사용하는 주변인

■ 약물을 사용하는 친구나 가족으로 인해 약물 문제에 개입될 수 있음

④ 어린 나이에 약물 사용 시작

- 신체가 아직 발달 중인 어린나이에 약물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신체 특히 뇌의 성장 완료에 영향을 미쳐서, 성인이 되었을 때 약물 중독이 될 확률이 증가함

⑤ 유전

- 중독에 대한 취약성의 40~60%는 유전적 요인으로 약물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서로 다름
- 약물을 처음 사용했을 때 느낌이 너무 좋아서 다시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음
- 어떤 사람은 다시 약물을 사용하지 않기도 함
- 중독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음

⑥ 정신건강 문제

- 우울, 불안, 주의력결핍 장애와 같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중독 될 가능성이 약 2~4 배 정도 더 높음
- 더 나은 기분을 위해 약물을 사용할 수 있음

(3) 중독과 유전

- 중독 가능성이 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 유전자는 자녀에게도 전달될 수 있음
 - 부모 중 한사람이 암 환자면 자녀도 그럴 가능성이 큰 것과 같음
 - 암과 달리, 중독 관련 유전인자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검사는 없음
- 자녀가 약물 문제를 가진 가족/부모를 보면서 자랄 때
 - 자녀가 이런 환경에서 성장하면 약물사용은 괜찮다는 잘못된 생각을 함
 - 또한 가족에게 약물 문제가 있으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는 보살핌과 관심을 받지 못함
 -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는 약물을 시작하게 될 기회가 많아지고 중독될 가능성 또한 높음
 - 이러한 문제는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되는 문제가 될 수 있음
 - 중독 위험은 더 높지만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님

3) 중독가족의 상황

- 오랫동안 낙인의 대상이었음
- 공공정책으로부터 외면 되었음
- 중독전문가들로부터 오해를 받아옴

- 중독자들의 배우자, 자녀, 부모의 고통스런 삶
- 중독전문가들은 중독가족을 중독의 원인, 회복을 저해하는 매개체로 인식함
- 가족을 회복의 자원으로 보는 인식이 부족함

4) 중독의 양상

(1) 감정질환

- 감정조절의 장애를 특징으로 함
- 중독상태가 진행되면 두뇌호르몬의 불균형 상태가 됨
- 이로써 감정표현이 부적적하거나 부재하게 됨

(2) 가족질환

- 가족의 직접적 영향
 - 가족이 정서, 신체 및 사회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
 - 중독으로 인한 영향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음
- 중독자 개인만 질병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님
 - 중독자와 함께 가족이 중독의 과정을 겪음
 - 가족의 역기능적인 역할과 정서적 억압으로 인한 심신의 병을 갖게 됨
- 중독가족의 노출 문제
 - 정서적 신체적 및 성적 학대
 - 방임, 과보호, 완벽주의
 - 우울, 자살
 - 각종 중독(물질 및 행위 중독)

참고 : 국립부곡병원홈페이지

2. 알코올 중독의 원인 및 실태와 문제점 및 서비스 현황

1) 알코올 중독의 원인

- 다른 정신 질환과 마찬가지로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할 수 없음
- 심리 사회적, 유전적, 행동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함
- 각 요소의 중요도도 개인마다 차이가 있음
- 알코올 관련 장애에는 유전적인 요소가 많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알코올 의존성 발생 위험도의 60%는 유전학적인 요인, 40%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봄
- 도파민, 오피오이드, GABA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알코올 중독 발생과 관련이 있음

- 정신분석학적 원인으로는 과도하게 처벌적인 초자아와 구강기 고착이 있을 수 있음

- 무의식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알코올을 사용한다고 함

서울아산병원홈페이지

2) 알코올 중독의 실태와 문제점

(1) 알코올 중독의 실태

- 2018년 150만 5390명, 2019년 151만 7679명, 2020년 152만 6841명으로 기록
- 2020년 기준 알코올 남용은 87만 2481명, 알코올 의존증이 65만 4360명인 것으로 추정
- 실제 알코올 중독자 중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8년 7만 1719명, 2019년 7만 1326명, 2020년 6만 4765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 2020년 기준 알코올 중독자 대비 알코올 중독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의 비율은 4.2%임

구분	2018	2019	2020
알코올중독자 등록 관리율(%)	0.68	0.62	0.59
알코올중독 추정환자수(명)	1,505,390	1,517,679	1,526,847
지역사회등록관리자수(명)	10,295	9,471	9,042

참고 : <https://www.akomnews.com/2021.10>.

(2) 알코올 중독의 문제점

- 많은 알코올의 섭취는 설사, 위염, 궤장염,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등을 초래함
- 폭음은 구강암, 설암, 인두암, 식도암, 위암, 결장암, 간암, 궤장암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음
- 알코올중독자는 흔히 퇴행성 심장병, 영양결핍증, 만성적 뇌 손상을 발전시킴
- 알코올중독 여성은 흔히 불임과 빈번한 부인병으로 고생함
- 임신중의 음주는 태아에게 경미한 신체적 및 행동적 결함에서부터 치명적인 알코올중후군과 같은 악영향을 미침
- 중독 가정의 아동은 다양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어려움에 처해 있음
- 비중독 가정의 아동보다 높은 불안과 우울의 수준을 보임
- 가족 결속력이나 표현성, 독립성, 지적인 지향수준이 낮고, 높은 수준의 갈등을 겪음

참고 : 한국알코올과학회

☒ 음주문제가 있는 경우의 치료

(1) 치료 전 개입 구성요소

① 아웃리치

- 지역사회로 나가서 이전에 도움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나 집단에게 서비스 혹은 지원을 확장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 아웃리치의 필요성

- 위협적임
- 다가가기 힘들
- 너무 경직되거나 비판적임
- 환자의 절실한 욕구와 상반됨
- 비용이 많이 듦

■ 아웃리치의 목표

- 접촉하기
- 신뢰 쌓기
- 관계 구축하기
- 필요 시 건강서비스 연계하기
- 알코올 중독 단기개입이나 치료에 참여시키기

② 선별검사

중독 여부와 그 결과에 따른 추후 개입의 필요성을 확인함

■ 선별검사의 목적

- 알코올 중독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선별
- 음주자들이 문제를 인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선별검사 도구

- AUDIT(알코올 선별도구)
- CAGE(알코올 문제의 존재 여부 판단하는 선별도구)
- 이 외에 성인, 청소년 등 연령에 맞는 다양한 도구 존재

③ 단기 개입/사정

■ 단기 개입

- 음주문제와 그에 따른 행동변화에 대한 인지 증가에 초점
- 전문가의 동기개입을 통해서 제공

■ 사정(조사)의 목적

- 치료 계획의 기초를 제공
- 대상자 변화 측정을 위한 기초 확립
- 대상자 문제의 우선순위 확인
- 치료와 사례관리 개입의 우선순위 확립
- 대상자의 강점과 기타 회복자원의 확인

④ 치료 계획

- 대상자의 구체적 욕구를 바탕으로 하는 개별화된 치료와 서비스 계획
- 상담자와 대상자, 다른 치료 제공자, 그리고 때로는 대상자의 가족들을 포함하는 협력활동
 - 효과적인 치료 계획의 조건
- 개별화, 융통성, 현실성, 간단함, 유용함, 해결중심적, 명료함, 변화와 진행에 반응적

⑤ 해독

- 해독의 목적
 - 알코올 금단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하며 술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줌
 - 단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줌
 -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준비시킴
- 해독 서비스의 유형
 - 사회적 해독 : 의약품 없이 심리사회적 지지를 받으며 외래, 가정 기반, 거주시설에서 해독
 - 의약품 지원 해독 : 의약품과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받으며 외래 서비스에서 해독
 - 의료적 관리 해독 : 의약품을 받으며 입원 서비스에서 해독
- 해독 과정
 - 음주 중단
 - 신체로부터 약물 제거
 - 금단 증상 관리
 - 회복으로의 첫 단계일 뿐이며 치료는 아님

3) 알코올 중독의 서비스 현황

(1) 서비스현황

- 중독치료 서비스는 대부분 중독자에게 집중되어 있음
-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적음
- 치료하는 기관에서 가족은 매우 중요하다.
- 기관에서의 가족 교육 핵심
 - 가족이 중독자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
 -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은 완치가 아니라 멈춤이라는 점
 - 중독의 탓이 가족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 중독의 조정자라는 오명을 벗게 함
 - 회복의 자원으로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점

(2) 서비스 대책

- 중독가족의 여정을 돕는 가족프로그램 필요
- 중독가족의 회복은 중독자의 회복과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자신들만 고통 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성을 인식하면서 위안을 받음
- 보편성을 아우르는 사회복지적 접근이 필요함
- 중독가족 프로그램은 중독자에 초점이 맞춰짐
- 불확실함이 확실한 여정을 회복을 위해 갖게 됨
- 재발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고 중독자의 회복과 관계없이 가족 자신이 회복하는 법을 배워야 함

[학습하기 (2교시)]

3. 도박 중독의 개념 및 특성과 원인 및 예방

1) 도박 중독의 개념 및 특성

(1) 개념

- 도박으로 인하여 본인,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 도박행위를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게되는 행위.

(2) 특성

① 도박의 증상

통제력 장애	자신이 선택한 도박행위를 자발적으로 통제 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 또는 상실
심리적 의존	삶의 중심이 도박이 되면서 도박보다 중요한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에 집착
내성	각성이나 흥분유발을 위하여 도박에서 배팅의 금액과 횟수가 증가하는 것
금단	도박을 하지 않으면 무기력하고 불안해하고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이게 되는 것

2) 도박중독의 원인 및 예방

(1) 도박중독의 원인

① 개인적요인

- 성장기 외상경험, 최초 사용시기, 스트레스 대처방식

② 생물학적 유전적 요인

- 유전, 성별, 정신장애

③ 사회적 요인

- 가용성 · 접근성, 사회적 태도, 합법화

(2) 도박중독의 예방

① 나 지키기 자원찾기

② 도박 중독의 위험성 알기

③ 도박유혹 거절하기

☒ 청소년도박중독(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료 기준)

- 도박 중독 진료받은 청소년 수는 2017년 48명에서 2021년 141명으로 3배 이상 늘었음

-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연도별 상담 건수도 2017년 503건, 2018년 1027건, 2019년 1459건,

- 청소년기의 도박 문제, 성인 도박과 완전히 다르게 인식함

- 청소년기의 도박 중독은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줌
- 청소년 도박 중독 치유에서도 성인과 완전히 분리해 상담·치료 필요함
- 자녀가 도박 중독이면 부모도 함께 상담·치유에 참가하여야 함

참고 : 한국대학신문 - 429개 대학을 연결하는 '힘'(<https://news.unn.net>)

4. 인터넷 중독의 개념과 실태 및 대처방안

1) 인터넷중독의 개념과 실태

(1) 개념

- 인터넷 중독은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자율적 통제가 불가능함
- 과도한 집착이나 충동적인 행동을 보임

- 이로 인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킴
- 우울증, 사회적 고립, 충동 조절 장애, 약물 남용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상태를 일컫는 것임

☒ 인터넷 중독의 특징

- 온라인 상에서 과도하게 시간을 허비 함
- 중독 아동청소년은 인터넷을 그만 두는 것에 어려움을 느낌
- 수면량과 운동량이 줄어들게 되고 취미가 없어지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듦
- 오프라인 상황일 때 인터넷에 대한 강한 의존적 충동을 느낌
- 온라인 상에서 보내고 그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할 때 죄책감이나 우울감 느낌

참고 : <https://psy.amc.seoul.kr>.

(2) 인터넷 중독의 실태(청소년 기준)

-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 또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이하 '과의존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1,276,789명 중 230,634명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5,053명이 감소함
- 인터넷과 스마트폰 두 가지 문제를 모두 갖고 있는 청소년(이하 '중복위험군')은 81,991명으로 전년대비 6,132명 감소함

<위험수준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단위: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과의존 위험군(A+B-C)	228,891	235,687	230,634
위험사용자군(A)	30,452	32,694	31,256
주의사용자군(B)	282,319	291,116	281,369
중복위험군(C)	83,880	88,123	81,991

* 위험사용자군 :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
 주의사용자군 : 사용시간이 늘어나고 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수준
 과의존 위험군 : '위험사용자군'과 '주의사용자군' 합계에서 중복위험군 제함

참고 : 여성가족부. 2023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발표.

2) 인터넷 중독의 대처방안

(1) 인터넷(스마트폰 등 스마트 미디어 기기 포함) 사용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부정적 영향은 없는가?

- 인터넷의 사용으로 인해 학교 생활 및 학업에 지장이 없는지 체크하기
- 인터넷중독 학생들은 학교 중도탈락의 비율이 높으며 성적하락 등의 결과가 나타남
- 인터넷사용으로 인해 대인 간 갈등 등 살피기

(2) 인터넷(스마트폰 등 스마트 미디어 기기 포함) 사용하면서 순간적으로 충동적인 행동을 저지른 적이 있는가?

- 게임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아이템을 지른 적이 있으면 이미 인터넷 사용에 대한 통제를 잃었다고 할 수 있음
- 인터넷 게임에 너무 몰입되어있다면 나도 모르게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자신의 통제력 과신하지 말기

(3) 인터넷(스마트폰 등 스마트 미디어 기기 포함) 사용으로 인해 신체적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 인터넷을 하다가 머리가 멍해진다던가 끼니를 거른다던가 눈이 침침하고 어깨, 목이 결리는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음
- 과다한 인터넷 매체의 사용은 우리 뇌의 기능에 영향을 주고 영양 결핍 또는 과다를 가져오고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침

(4) 스트레스의 유일한 탈출구가 인터넷의 사용인가?

- 스트레스 해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충동적이고 과도한 사용을 조절하기가 어렵고 병리적 사용을 가져오기 쉬움

(5) 사람들과의 교류가 인터넷을 통해서만 집중되어 있는가?

- 대인관계 기술의 부족, 수줍음 등의 이유로 오프라인 상의 교류가 어려운 사람들은 온라인 교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 온라인상의 대인관계는 피상적일 경우가 많고 오프라인 상의 관계에 비해 여러 한계점을 지님
- 오프라인의 관계를 확대하는 기능으로서 온라인의 관계를 활용할 줄 알고, 대인관계에 온·오프라인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함

참고: <https://myr.ewha.ac.kr/>

제14주차 2차시	
강의주제	가족복지의 전망과 과제
<div> <div>학습 목표</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복지의 방향성을 전망할 수 있다. ● 가족복지의 과제로 정책방향, 서비스의 방향, 프로그램의 다양화, 가족복지 실천의 방향성 등을 제시할 수 있다. </div>	
<div> <div>학습 내용</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족복지의 전망 2. 가족복지의 과제 </div>	

[학습하기 (1교시)]

1. 가족복지의 전망

1) 가족형성의 변화

- 인공수정, 유전공학 등을 통한 가족 형성
- 다양한 형태의 가족 등장
- 개념 지체현상으로 인한 세대 차이 및 가족 문제 야기

(1) 인공수정

- 배우자 간 인공수정은 사회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
 - 가족 형태가 형성된 체제에서 생식 보존 기술을 통한 임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
- 비배우자 간 인공수정은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 남성의 정자가 제삼자에게서 제공되었을 경우는 체내 수정이든 체외 수정이든 아버지가 다른 출산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윤리적 문제가 따름
 - 정자은행을 통하여 인공수정을 할 경우에 같은 정자 제공자가 여러 명의 여성에게 적용될 수 있고 다수의 이복형제가 태어나게 됨
- 무배우자 인공수정 방법으로 인한 출생의 경우
 - 부부가 둘 다 생식 능력이 없지만 아이를 원할 경우에 보조 생식 기술에 의해서 아이를 상품처럼 만들어 내므로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따름
 - 결혼한 부부관계가 아닌 동성애자나 특별한 사유로 아이를 필요로 하는 자가 무배우자 형식의 인공수정 방법을 사용할 때는 인간의 존엄성조차도 위협받게 됨
- 정자와 난자를 모두 제삼자로부터 제공받아 부인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체외수정
 - 체외수정은 불임치료대책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허용이 인정됨

- 약용과 부작용이 심각한 현실적 윤리문제를 초래함

참고 : 인공수정의 윤리. <https://home.chonbuk.ac.kr>

(2) 유전공학

- 유전자란 외모와 지능, 건강 상태 등 부모의 특성을 자식에게 전달하는 기본 물질임
- 유전자 편집을 위한 2가지 기술
- 유전자 편집 기술과 유전자 가위 기술
- 유전자 편집 기술은란 유전자의 일부를 제거하고 새로운 유전자로 대체하는 기술
- 유전자 가위 기술은 문제가 되는 유전자만 선별해 잘라냄
- 유전자 가위 기술을 더 발전시킨다면 부모가 원하는 대로 맞춤형 아기를 탄생시키는 일이 가능해짐

(3) 인간배아 연구에 관한 입장

- 인간 배아 연구를 찬성하는 입장
- 암과 에이즈 같은 난치병을 치료하여 인류의 질병 퇴치에 기여할 것임
- 배아와 아기를 윤리적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고 주장
- 배아는 그저 세포 덩어리라며 배아 연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비판함
- 인간 배아 연구에 반대하는 입장
- 유전자 조작 기술도 원자력이나 컴퓨터, 로봇과 같이 인류를 파멸시키는 기술이라고 함
- 인간이 수단으로 다뤄지면 안 되므로 반대함
- 목적이 좋아도 인간이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
- 유전자를 조작하는 기술이 안전하지 않다고 봄
- 유전자 가위로 유전자를 잘못 자를 경우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

참고 : <https://www.incheon.go.kr>

2) 주거 공유의 개념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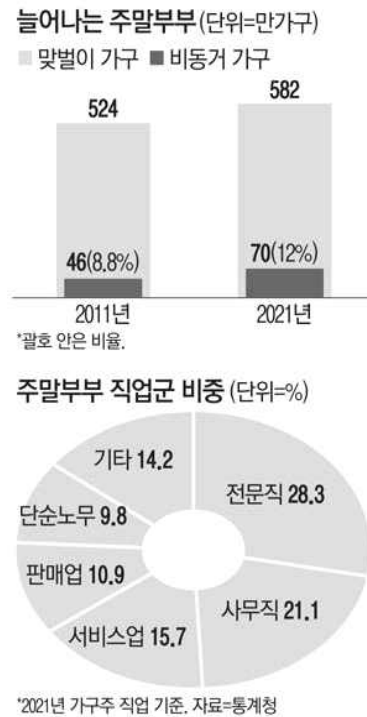
- 주말부부 가족 크게 증가할 것임
- 면대면의 대화를 통해 지지 받을 일이 빈번해질 것임
- 정서적 기능을 중시하는 가족이 형성될 것임
- 자녀교육 및 부부생활 갈등이 가중될 것임

(1) 주말부부의 증가(2021년 통계청자료 기준)

- 주말부부가 10년 사이에 50% 이상 급증함
- 주말부부를 포함한 비동거 맞벌이 가구는 69만7000가구를 기록

- 전체 맞벌이 가구(582만 3000가구) 대비 12.0%에 달함
- 맞벌이 부부 8쌍 중 1쌍이 주말부부인 셈임
- 주말부부가 증가한 주요한 배경으로 성 역할, 직업관 등 변화임
- 가사와 육아 부담을 여성만 전담하는 구조에서 점차 탈피하고 있는 것도 한몫함
- 최근 성 역할 구분이 유연해지면서 일하는 여성이 늘어남

참고: 매일경제, 2022. 06.



(2) 부부갈등의 해결법

■ 성격차이 해결법

- 서로가 싫어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전달하는 것이 중요함
- 잔소리 하기 보다는 대화를 통한 약속 받아내기
- 가치관에 대한 생각을 상대방에게 강요해서는 안됨

■ 양가부모 문제

- 남편 혹은 아내는 상대의 부모님이 배우자 공격시 자신을 공격하는 것과 같음을 생각해야 함
- 남편의 가족 구성원은 아내와 자녀 부모까지 포함됨

- 아내의 가족 구성원은 남편과 자녀까지임
- 가족문제는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풀어야 함

■ 자녀문제

- 육아문제는 '함께'하는 동반육아가 중요함
- 사소한 것도 부부가 함께 상의해서 선택하면 독박 육아가 아닌 동반 육아가 가능함

■ 부부관계가 힘든 이유

-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예 : 사자와 소 부부)
- 상대를 배려하지 않은 최선은 착각일 수 있음
- 사랑의 기술로 진심어린 대화가 필요함
- 화가 나 있을 땐 대화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핵심

3) 부권 중심의 가족 이미지 약화

- 전통사회에서는 경제적 가족의 부양자가 아버지였음
- 성역할 개념 변화의 가능성이 큼
- 우리나라의 성비 불균형 현상은 이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임

부부간 절대 해서는 안되는 말 NO

상대 집안을 건드리지 마라	"너희 집안은 왜 그래?" "넌 집에서 그렇게 배웠나?"
성격을 비난하지 마라	"미마보이 같아." "장스름 이것밖에 못해?" "편날 늦어, 시간개념이 없어?"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원망하지 마라	"내가 제대로 된 밥상 한번 차려봐 봐?" "내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비교하지 마라	"누구네 장모는 차를 사줬데." "누구네 남편은 영웅도 시종다닌데."
가르치려 들지 마라	"내가 이 집을 아끼 무지 팔라고 했지." "편지 두장 담으라고 했어, 안했어?"

부모-자녀간 절대 해서는 안되는 말

비교하지 마라	"엄마 친구 양들은 이반에 대기/업 과음으로 승진했더라."
타하는 말은 하지 마라	"거봐라, 결국 그렇게 못했니." "우리집에서 어떻게 내 길은 애가 나왔지."
할 말은 확실하게 해라	"네 뽀니까 오지 마라, (그려놓고 정작 오지 않으면) 자식 키워나 봐야 다 소용없다니까."
자기파괴적인 말은 하지 마라	"그래, 내가 누굴 찾았잖니, 다 내 잘못이지." "자네 누굴 달아서 지냈어?"

참고 : <https://www.nongmin.com/nature>. 2021. 05.

4) 생물학적 부모의 의미 약화

- 아동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아동 자신의 인식 강화됨
- 부모의 소임을 다하지 못할 시 양육권의 거부와 박탈이 심해질 것임
- 생물학적 부모가 영원한 부모가 되는 가능성의 희박해질 것임
- 사회적 차원에서 의미 있는 부모가 진정한 부모가 될 것임

5) 가족 내 이기주의 팽배

- 남보다 못한 가족이 늘어날 것임
- 존속살인, 유기, 방임이 늘어날 것임
- 한부모가족, 노인가족, 아동가족 등이 증가할 것임
- 취약가족층의 두터운 형성으로 고복지 부담 야기 됨

6) 가족 개념에 대한 수용의 범위 확대

- 전통적 의미의 가족 : 일부일처제에 기초함
- 최근 가족 개념에 대한 수용의 범위가 넓어짐

[학습하기 (2교시)]

2. 가족복지의 과제

1) 가족복지정책의 방향

(1) 가족관련법과 가족관련정책 및 전달체계

- 가족복지정책의 목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임
- 가족 정책의 수행 여부는 매우 중요함
- 민주적 역량과 편안한 가족환경 조성 등의 공공의 책임화
- 위기 가족 해체 요인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
- 가족문제의 예방적 차원의 종합적인 전달체계와 지원책의 마련

(2) 재취업을 위한 노력

- 맞벌이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추세
- 능력 위주의 시대로 평생직장 개념이 없어짐
- 재취업은 가정생활에도 활력을 찾게 됨
- 자녀에게도 모범이 될 수 있음
- 재취업은 현대 가정의 새로운 비전이 될 수 있음

(3) 통합적 서비스 제공과 전문인력의 교육과 자격

- 건강가정사의 전문성 강화
- 가족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결 및 자원의 효율적 사용
- 건강가정사의 시설 현장실습 강조

(4) 알코올중독 전문가 양성

- 알코올 중독 치료, 개입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 알코올 중독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곳도 제한적임

2) 가족복지서비스의 방향

(1) 1-2인 가구에 대한 주거 정책 및 사회적 보호의 강화

- 도시, 농촌, 노인 층의 1-2인 가구 대상 저렴한 주거 정책 강화되어야 함
- 도시 1-2인 가구 대상
 - 마켓, 대중교통, 주차장, 근린시설 등이 조성되어야 함
- 농촌 및 노인 1-2인 가구 대상
 - 편리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내부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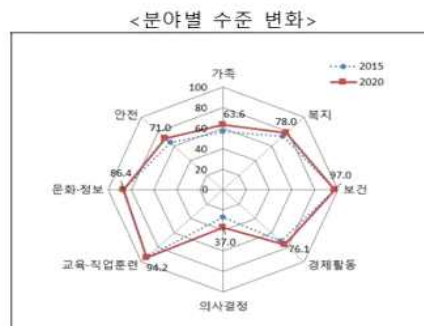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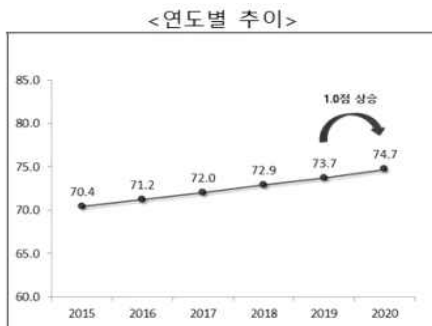
(2) 돌봄서비스 및 가사지원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으로 인해 노인, 아동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 급증
- 가족 내 무급 돌봄노동을 주로 담당했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로 인해 가족내 돌봄자원 축소
- 가족에게 부여되었던 돌봄 부담을 국가나 지역사회 등의 분담 필요성 대두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장기요양, 보육서비스 등의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강화

(3) 성평등 의사결정 및 가족문화 정착지원

- 성평등 의사결정은 정착되어가는 바람직한 경향임
- 그럼에도 자녀양육 및 가사의 의사결정은 여성이 주도적임
- 개선되고 있는 성평등 가족 내 역할이 정착되어 가족문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2020년 국가성평등지수가 전년보다 1점 조금 상승했으나 의사결정 분야에서의 성비 불평등은 여전함

(성평등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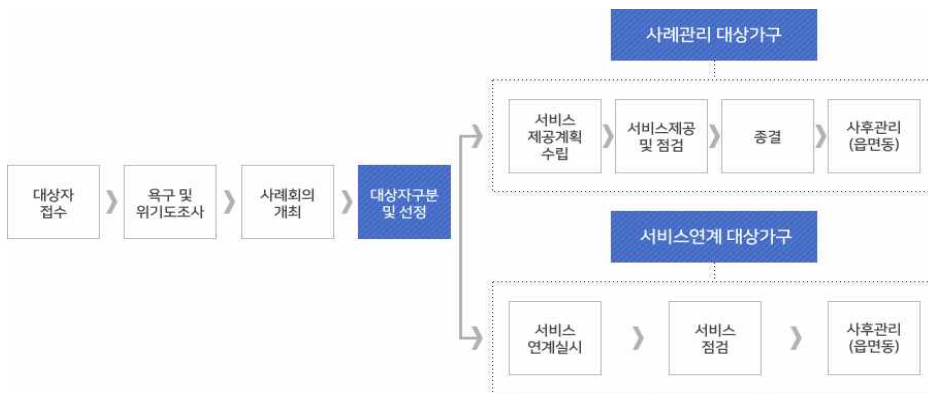


국가성평등지수. 여성가족부 제공

(4) 취약·위기가족 통합사례관리 체계 구축 및 지원강화

- 사례관리는 가족 특성과 가족원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제공이 전제 조건임
- 필요 시 사례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담기관과 전담기구의 설치가 논의되어야 함
- 통합사례관리
 - 지역사회 공공·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체계가 토대가 됨
 -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함
 - 복잡하고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지속적으로 상담, 모니터링 해나가는 사업임
- 통합사례관리 중점대상
 - 탈빈곤 지원이 가능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구
 - 차상위 빈곤가구 긴급지원 대상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통합사례관리 절차)



(5) 가족 여가시간 활용 지원 및 가족 스스로의 노력 필요

- 토요휴무제의 정착으로 미래 여가 시간은 증가할 전망이다
- 가족여가의 제한요인
 - 경제적 부담
 - 부족한 프로그램과 정보
 - 여가시설이나 장소의 정책적 해결이 필요함
-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3) 가족복지프로그램의 다양화

(1) 여성의 가사와 일의 병행 지원제도 확대

- 여성의 양육과 출산에서 경제활동 중단 사례 많음
- 경제활동의 중단은 재취업을 어렵게 함
- 기존의 육아휴직제도 정착이 필요함

- 간호휴가제와 같은 가족부양부담의 융통성 있는 대처가 필요함
- 탄력적 근무제 등의 근무형태의 다양화가 필요함

(2)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확대

- 노인부양부담비 확대 예측됨
- 가족의 노인부양부담에 타격이 예상됨
- 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들의 지원이 필요함

(3) 여성, 아동 및 노인의 동등한 권리를 이정하는 가치관의 변화

- 붕괴되어야 할 가치관의 변화
- 가족주의 가치관
- 가장이데올로기 가치관
- 현모양처 이데올로기 가치관
- 효 이데올로기 가치관
- 개인의 자율성, 민주성, 평등성을 추구하는 가치로 변화해야 함

(4) 평등한 남녀성역할 분담

- 전통사회에서는 성역할 분담이 가능하였음
- 미래사회에서 성역할의 분담은 여성에게 역할갈등을 유발하게 됨

4) 가족복지 실천의 방향성

-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 가족 생활주기에 직면하는 문제 해결
- 가족 친화적 복지정책의 개발
- 가족의 상이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국가 주도적 지원이 필요
- 가족복지 관련 담당 인력의 전문화
- 담당 인력의 전문적 교육 시스템 구축
- 전문인력의 가족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결합 필요
- 가족단위 상담 프로그램의 강화
- 가족의 정서적인 유대관계 지지 및 강화
- 가정폭력 예방과 대응강화
- 가족의 정신건강 함양
- 가족복지 사례관리의 강화
- 복합적인 문제의 포괄적 사정, 계획, 서비스 제공의 필요